

제 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통 일 부

일 반 기 사

世界日報

2003. 1. 27 (월)

이산상봉 후보명단 교환

남북은 26일 관문점에서 제6차 이산가족상봉(2월 20~25일, 금강산) 후보자 각각 200명의 명단을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인선위원회와 신체검사 등을 통해 선발된 남측 후보자 명단을 이날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중일일보

2003. 2. 10 (월)

6차 이산상봉 후보자 생사·주소 교환

남북한은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 주소확인 결과를 북측에 통보했고, 북서 치릴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9일 관문점에 알려왔다.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남측 강관호(67)씨의 어머니 원읍전(92)씨다. 이영종 기자

국민일보

2003. 2. 10 (월)

이산상봉 324명 생사 확인

대한적십자사는 9일 남북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관문점에서 갖고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측 이산가족 136명과 북측 188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회보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직어 공개한 북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측 신청자 200명 중 136명의 북측 가족 생사가 확인됐으며 남측 1명의 재북가족은 상봉을 거절했다.

생사와 주소가 확인된 재북가족은 부모 2명, 배우자 8명, 자녀 47명, 형제 자매 116명, 손자 5명, 3촌 이상, 친척이 86명 등 모두 261명으로 집계됐다. 북측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남측 강관호씨(67)의 어머니 원읍전씨(92)다. 한직은 10일 적십자측 여부와 연령 등을 감안해 100명을 선정, 11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신창호기자 procol@kmbi.co.kr

한겨레

2003. 2. 10 (월)

이산가족 324명 생사 확인

오늘 '6차상봉' 명단교환

남북은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상봉 후보자 200명의 상대쪽 가족 생사확인 결과를 9일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주고받았다.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남북은 6차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11일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직은 6차 상봉 행사를 기존의 바닷길이 아닌 금강산 육로를 통해 치르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에서 넘겨준 확인 결과물

보면, 남측 상봉 후보자 200명 가운데 136명의 북측 가족 생사가 확인됐는데, 104명은 재북 가족이 살아 있고 1명은 상봉 거절, 31명은 가족이 모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측은 북측에서 요청한 200명 가운데 188명의 생사를 확인했으며, 184명은 재남 가족이 살아 있고 2명은 거동불편, 2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사·주소가 확인된 재북 가족은 △부모 2 △배우자 8 △자녀 47 △형제·자매 116 △손자 5 △삼촌 이상 친척이 86명 등 모두 261명이다. 재남 가족은 △

부모 10 △배우자 10 △자녀 19 △형제·자매 557 △손주 1 △삼촌 이상 친척 211명 등 모두 808명이다.

북측에 살아 있는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남측 강관호(67)씨의 어머니 원읍전(92)씨로 나타났다. 운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봉 여부는 불투명하다. 남측에 살아 있는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북측 량영애(69)씨의 어머니 장수천, 리은택(73)씨의 어머니 박준록, 송순영(71)씨의 어머니 오매월씨로 모두 96살이다.

이재훈 기자

이산가족 주소확인서 교환

남북은 오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앞서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남측 136명, 북측 188명에 대한 주소확인 회보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명단을 토대로 100명을 선정한 뒤 11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북, 이산상봉 육로이동 불가 통보

오늘 100명씩 명단 교환

북한은 10일 오전 조선적십자회 장애인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20~25일 열리는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육로 이동을 위해 연락관 접촉을 계속하겠지만 북측 태도가 완강해 이번 6차 이산상봉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은 기존 방식대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를 이용해 바닷길로 오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10일 6차 상봉여

참가할 100명씩의 이산가족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11일 이를 교환한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3·1절 남북 공동행사

내달 1~3일 서울서 연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3·1절 행사가 3월1~3일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3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준) 실무접촉 대표단은 10일 '북측 대표단 100명 등 남북의 종교인이 주관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를 이 기간 중 서울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국민일보

北, 송금파문에 몽니 부리기?

이산가족 육로 이동 거부 배경

북측이 우리측 이산가족의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상봉행사 참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우리 당국은 뚜렷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파문에 대한 불쾌한 반응을 이번 육로 이동 거부라는 형태로 표출한 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우리측 한적과 통일부가 요청한 육로를 이용한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해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가족 육로 이동은 사실상 무리"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기존 방식대로 설봉호를 통한 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우리측이 이산가족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하는 자리에서 육로 이동 가능성을 타진할 때도 북측은 "윗선에

대북사업 중단 최악 우려 설봉호 외화 실익 계산도

鄭회장 방북때완 판판

서 결정할 일"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같은 자세 변화는 지난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현대 관계자들의 육로 관광 답사때 보였던 협조적인 모습과는 사뭇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측 태도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컨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북측의 기본적 태도가 이번 이산가족 육로이동 거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측은 이미 현대상선의 송금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상 거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동시에 북측은 남측 내부의 대북송금 의혹 해소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망자세를 유지해온 북한은 앞으로 이번 송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대가 추진해온 모든 대북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거기다 금강산 육로 개방은 얼마전 유엔군 사령부측과의 미묘한 실랑이 속에 어렵게 성사된 것인데도 남측 내부의 관광 수요가 생겨나기는 커녕 대북사업의 악재만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쉽게 이산가족 이동통로로 금강산 육로를 열어버리면 북측으로서는 외화 획득이라는 실익은 놓치고 이산가족 이동을 위한 국경 개방이라는 부담만 떠안게 된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신창호기자 procol@kmb.co.kr

北 “이산상봉 육로 불가”

선박이동 기존입장 고수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최근에 뚫린 육로를 통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0일 오전 북측으로부터 이번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육로이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가족의 육로이동은 사실상 무리라며서 기존 방식대로 설봉호를 통한 해로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기자

北, 이산가족 육로상봉에 단색 표명

정부는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육로를 통해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전해왔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으로부터 20일 이산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받았다”면서 “북측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존의 해로 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한적 이병웅(李柄雄) 총재특보는 “그러나 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절충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북측과 끝까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지난 7일 서영훈(徐英勳)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장재언(張在彦)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 이산가족들의 육로이동을 제외한 바 있다. 이용욱기자

내일신문

●주말 남북관계 2제

이산상봉 · 육로관광 교류정례화

면회소 건설 관련회의 · 금강산시범육로관광 실시

연재호 기자 news21@naeil.com

IAEA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결정하는 등 한반도 위기가 우려되고 있으나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이번 주말을 맞아 교류 정례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이끌고 있는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이 각각 면회소건설위 회의와 육로관광을 앞두고 있다.

남북적십자사는 13~15일 금강산에서 면회소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건설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남북은 건설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규모를 비롯, 공사일정, 부지활용, 남북간 업무조정 등 면회소 건설을 위한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회소규모와 관련 북측은 2만 2000명, 남측은 2300명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병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대표단은 13일 오후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14~16일에는 금강산 시범육로관광이 실시된다. 시범육로관광이 차질 없이 치러진 뒤에는 21일쯤부터 일반일을 대상으로 한 정규관광이 실시될 예정이다. ‘민족의 명산’을 찾는 길이 해로와 육로의 두 가지 관광코스로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시범 관광에는 국회의원, 정부관계기관, 사업관계자, 외교사절, 강원도 지역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현대 계열사 사장단, 내외신 기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한다.

東亞日報

6차상봉 남측 100명 확정

대한적십자사는 10일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0~25일, 금강산)에 참가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을 확정했다. 직계가족과 고령자를 우선한 이들 가운데 최고령자는 합정호씨(93)로 북측의 아내 김진권씨(80)와 아들 성운씨(55), 딸 금희씨(52) 등 3명을 만난다.

한적은 11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東亞日報

2003. 2. 15 (토)

이산상봉단 육로 방북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4일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6차 이산가족 상봉시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

별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과 23일 각각 북측을 방문할 남측 이산가족 600명은 버스를 이용해 이산가족 상봉장인 금강산여관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6차 이산상봉 육로이용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금강산 육로가 이용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로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2003. 2. 15 (토)

대한매일

2003. 2. 15 (토)

이산상봉 금강산 육로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금강산 육로길이 이용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낮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로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과 23일 우리측 이산가족 500명, 100명이 버스를 이용해 상봉장인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됐다.

○충원상기자 wshong@kdaily.com

400여명 첫 육로관광

▶금강산공동취재단 | 남북 분단 반세기 만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

로가 열렸다.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단 400여명은 14일 낮 1시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다.

관광단은 금강산관도에서 남측 임시 출입국관리연락사무소(CIQ)~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북방한계선~삼일포 주차장~온정리 태창샘물공장 부지~장전항 북측 CIQ에 이르는 39.4km를 버스로 이동, 오후 금강산에 도착했다. 오후 4시 북한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열린 '금강산 육로관광 기념행사'에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조흥규 관광공사 사장, 이종혁 조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방종삼 금강산관광총회사 총사장 등 남·북측 인사가 참석했다.

금강산 육로관광 본격 시작

어제 DMZ 통해- 6차 이산상봉도 육로이용

분단 반세기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동해선 임시도로가 지난해 9월18일 착공 이후 5개월여 만에 14일 개통돼, 이를 통한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북한측은 이날 남측 이산가족들이 이 임시도로로 왕래하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6차 이산

가족 상봉행사에 금강산 육로관광길이 이용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11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임시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CIQ) 광장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과 김형기 통일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지역주민,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이어 정몽헌 현대

아산이사회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직원과 각계 인사로 구성된 498명의 시범관광단은 금강산에서 내려온 22대의 버스편으로 CIQ를 출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한편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로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왕래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 이산가족들은 오는 20일과 23일 각각 500명과 100명이 버스를 이용해 상봉장인 금강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창호기자·고성=공동취재단

경향신문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어제 임시도로 개통식... 400여명 MDL 통과

6차 이산상봉 육로 이용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단 400여명이 14일 낮 1시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 분단 반세기 만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육로가 열렸다. / 관련기사 18면

관광단은 이날 새벽 서울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출발한 버스편으로 강원 고성군 금강산콘도에 집결, 관광증을 교부받고 남측 임시 출입국관리연락사무소(CIQ)를 거쳐 MDL을 통과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11시 임시 CIQ에서 김형기 통일부 차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과 현지주민, 군장병, 관광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남북 간 금강산길 연결을 축하했다.

관광단이 버스에 오르자 12명의 길놀이패가 상쇠의 평과리 연주를 시작으로 관광길 안전을 기원하는 터밧기 행사를 펼쳤다. 시범관광단에는 이범웅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조성우 민회협 공동의장, 조배숙 민주당 의원과 주현외교사절, 강원도 지역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금강산 육로길이 이용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에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을 제의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적십자로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통문은 장재연 조선중앙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과 23일 우리측 이산가족 500명, 100명이 버스를 이용해 상봉장인 금강산에 갈 수 있게 된다.

고성·금강산 / 공동취재단·이용욱기자

이산상봉가족 육로이용 합의

북, 전화통지문 보내...20일 일반인 첫 비무장지대 통과

금강산에서 20~25일 순차적으로 이뤄질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이산가족들이 일반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육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산가족들의 동해선 임시도로 이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육로관광보다 하루 앞선 것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북한은 '남쪽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오갈 수 있도

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애인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서영훈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적은 7일 조선적십자회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을 제의했으나 북쪽은 10일 '육로 이동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북쪽이 육로 이동에 동의함에 따라, 6차 상봉행사에 참여할 남쪽의 500명(북쪽 상봉자 가족과 친척)과 남쪽 상

봉단 100명은 각각 방북 하루 전인 19일과 22일 오후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신분증을 받아 20일과 23일 버스를 이용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임시 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를 거쳐 상봉장인 금강산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북쪽과 상봉행사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금강산 육로통해 이산상봉

北赤 "왕래허용 특별조치"

20~25일 금강산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처음으로 금강산 육로길이 이용된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4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

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측이 지난 7일 전통문을 통해 이산상봉이 고령이라는 점과 군사분계선(MDL) 통과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육로왕래를 공식 요청했으나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었다. 북한이 육로왕래를 '특별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시기와 맞아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일반인들의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 현지숙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별도로 설봉호를 운항하는 한편 설봉호의 출항시간도 육로 이동 시간에 맞춰 1~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기동기자

6차 이산상봉 일정 확정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일정이 확정됐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 2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리측 이산가족과 친척 500명, 100명은 방북 하루 전인 19일과 22일 오후 각각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해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신분증을 지급받는다.

이어 20일과 23일 오전 8시30분 버스로 속초를 출발, 북측 통문을 거쳐 오후 1시쯤 고성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100의사기자 wshong@kdaily.com

대한매일

2003. 2. 18 (화)

한국경제

2003. 2. 20 (목)

世界日報

2003. 2. 20 (목)

6차 이산상봉 오늘 금강산서

남565명 육로통해 이동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인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565명이 20일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향한다.

이세웅(李世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상봉단은 북한 이산가족 99명을 만날 가족친척 465명과 지원요원 70명, 취재진 30명이다.

북측 이산가족은 당초 모두 100명이었으나 북측 신청자 윤기(여·71)씨의 어머니 최명희(94)씨가 중환으로 금강산에 갈 수 없다고 알려와 막판에 빠졌다.

/속초=공동취재단, 이상민기자
21smin@segye.com



'들뜬 이산가족' 제6차 남북 이산가족 남북 상봉단이 19일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 마련된 외환은행 임시 환신소에서 환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향신문

2003. 2. 20 (목)



이산가족 오늘 육로상봉

속초 / 김문석기자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 1진들이 방북 하루전인 19일 오후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남 이산가족 461명 육로 첫 상봉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섯달 만에 다시 금강산이 남북 피발이들의 상봉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쪽 이산가족 461명은 20일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현대아시아가 운영하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쪽 상봉단 99명을 만났다. ▶관련기사 2면

남쪽 상봉단 최고령자인 장수천(97·여)씨는 53년 만에 만난 북쪽의 딸 랑영애(71)씨의 손을 잡고 가슴이 북받쳐 말을 잊지 못했으며, 여섯살 어린 나이에 헤어진 북쪽 아버지 광범곤(80)씨를 다시 만

난 남쪽 아들 광화희(59)씨는 "돌아가신 줄 알았다"며 흐느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금강산에 온 이임노(77)씨는 북쪽의 남편 김경수(77)씨를 보자 "강산이 다섯번 변했는데 이제야..."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오매월(95)씨는 북쪽의 딸 송순영(72)씨가 상봉장에 들어서자 잠시 혼란했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딸의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잊지 못했다.

우종필(77)씨는 북쪽의 남편 리대인(80)씨를 만나기 위해 19일 속초 한화콘도까지 왔으나 20일

새벽 '섬광증' 증세를 보여, 남편과의 만남이 자칫 스트레스를 주면 좋지 않다는 진단 탓에 반세기만의 부부상봉을 포기했다. 북쪽 남편 리대인(80)씨는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어디 있느냐"고 우씨를 계속 찾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21일에는 개별적으로 만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재훈 기자
nomad@hani.co.kr

한국일보

2003. 2. 21 (금)

“살아있어줘 고맙다”

남측 461명 첫 육로이용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 금강산에서 시작됐다. 남쪽 가족 461명은 이날 동해선 임시도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북쪽 가족과 단체상봉을 가진데 이어 오후 7시부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북쪽 상봉단 100명 가운데 윤기(71·여)씨가 남쪽 어머니 최명환(94)씨의 중환 소식에 상봉을 포기해 99명만 참석했고, 465명으로 예상됐던 남쪽 가족 중에서도 4명이 건강 등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했다.

이날 오후 금강산 온정각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섯 달만에 이뤄진 남북 혈육들의 상봉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남쪽 상봉단의 최고령자인 장수천(97) 할머니는 53년만에 만나는 딸 랑영애(71)씨의 주름진 얼굴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살아있어줘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 이화여고 재학중 전쟁이 나자 적십자병원에서 임시 간호원으로 일하다 월북했던 영애씨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유복

자로 자란 아들 종상(53)씨를 부둥켜안은 채 눈시울을 붉히던 북쪽의 최인규(77)씨도 10년 전에 사망한 아내 소식을 듣고는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반백년의 세월 동안 수절해 온 남쪽 아내는 남편과의 꿈 같은 해후가 믿기지 않는 듯 말을 잊

졌던 남쪽의 아내 박미자(74)씨는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며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는 헤어질 당시 한살배기였던 외동아들이 5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상봉가족 중에는 형을 대신해 인민군이 되었다가 반세기 만에 가족을 만난 북쪽의 동생들이 많았다. 남쪽의 박학조(71)씨는 자신을 대신해 인민군이 되었다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북의 동생 친초(68)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울먹였고, 민병두(70)씨도 북의 동생 병득(68)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2박3일이라는 짧은 만남 때문인지 캠코더를 이용한 '디지털 상봉'은 물론 가족앨범과 비디오테이프, 서신 등을 통한 간접상봉도 눈에 띄었다. 권삼남(77·여)씨는 북쪽의 동생 오건(74)씨에게 96년에 촬영한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비디오테이프로 보여주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라며 울먹였다. /금강산=공동취재단

97세노모 71세딸 만나

50년 수절한 남측 아내 北 남편 손잡고 눈물만

고인과 '비디오 상봉'도

지 못했다. 1950년에 헤어진 북의 남편 김경수(77)씨를 만난 동갑내기 아내 이임노(77)씨는 다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던 남편이었지만 한마디 말도 못한 채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흐르는 눈물만 흘렸다. 지난해 무류관절 수술을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상봉장에 도착한 이씨는 한참이 지난 뒤에도 "꿈인지 생인지 모르겠다"며 꼭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전쟁 당시 경복궁주의 교향집에서 남편 김상인(71)씨와 헤어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20일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장수천 할머니(97)가 53년 만에 만난 북의 딸 양영애씨(71)의 손을 잡으며 오열하고 있다.

“살아있어줘 고맙구나”

남측 이산가족들 육로이용 北측 99명과 첫상봉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남측 이산가족 461명은 20일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방북,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99명과 상봉했다. 이산가족 상봉단이 도로를 이용해 북측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장수천 할머니(97)는 53년 만에 만난 북의 딸 양영애씨(71)의 손을 꼭 잡은 채 “살아 있어줘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금강산에 온 남측의 이임노씨(77·여)는 북측 남편 김경수씨(77)에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방북한 딸 영옥(54) 영신씨(52)는 “아버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흐느꼈다.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북에 간 이은택씨(73)의 남쪽 어머니 박준록 할머니(95)는 거동이 불편해 상봉장에 오지 못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그 대신 녹화한 화면을 보냈고, 이씨는 반평생 자신을 기다린 어머니가 화면에서 “잘 살아달라”

고 말하는 모습을 본 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권오건씨(74)도 남쪽 어머니가 96년 사망하기 직전에 녹화했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상봉에 이어 21일 오전에는 개별상봉을 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은 22일 작별상봉을 마친 뒤 귀환하며, 이날 두 번째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방북해 북측의 친지들을 만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김경수·이임노씨 부부가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0년 기다린 老母 ‘캠코더 상봉’

금강산 육로 이산상봉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섯달 만에 또 다시 금강산이 남과 북 혈육들의 상봉으로 눈물바다를 이뤘다. 20일 남북간 육로를 통해 방북한 남측 이산가족·친척 4백61명은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이산가족 99명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지금까지의 속초~장전항 설봉호편이 아닌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처음으로 방북했다. 남측 가족들은 “육로를 통한 상봉길이 네시간 걸리는 뱃길에 비해 이 동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좋았다”며 “차 안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금강산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장수천(97) 할머니는 이날 53년 만에 만난 북측의 딸 양영애(71)씨의 손을 잡고 북반치는 감정에 말을 잊지 못했으며, 여섯살 때 헤어진 북측 아버지 광병곤(80)씨를 만난 아들 화희(59)씨는 “아버지가

9旬 어머니 거동 못해

“잘 살아달라” 畫像당부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흐느꼈다.

아버지 병곤씨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전쟁 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로 금강산까지 온 남측의 이임노(여·77)씨는 반세기 만에 만난 북측의 남편 김경수(77)씨를 보자 “꿈인지 생사인지 모

르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곁에 있던 남측의 딸 영옥(54)·영신(52)씨는 “아버지, 아버지”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전쟁 당시 경북 영주의 고향집에서 북측 김상원(71)씨와 헤어졌던 남측의 아내 박미자(74)씨는 “왜 이제 나타났느냐”며 울먹였다. 김씨는 헤어질 당시 한살배기였던 외아들이 병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북에 간 이은택(73)씨는 자신을 반평생 동안 기다린 남측의 어머니 박준록(95)할머니가 거동이 어려워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신 캠코더를 통해 “잘 살아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오영환 기자
hwasan@joongang.co.kr

반세기 '이산의 한' 금강산도 울었다

■ 이산상봉 첫날 이모저모

“은택아, 어미 살아있다”
캠코더로 아들 재회

“오빠 만나면 주려고...”
30년 모은 생필품 건네

반세기 만에 열린 금강산 길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은 남쪽의 461명 이산가족들이 북녘 피붙이들을 만났다. 세월의 풍파에 몸이 불편한 이들은 비디오투 '상봉의 염원'을 담아 마음으로 금강산을 찾았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산의 한'은 봄비라도 눈 녹듯 풀어 해쳐졌다. 분단이 강제해 온 '서로 다른 이남'은 바람앞의 촛불 같 흔들렸다.

의용군으로 나간 큰 아들 리은택(73)씨를 반평생 동안 기다린 남쪽의 어머니 박준록(95)씨는 거동이 어려워 이번 상봉에 참여하지 못했다. 캠코더에 담긴 그림과 말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반세기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났다. “은택아 어미가 아직 세상에 살아 있다. 보고 싶은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몸이 불편해 내가 갈 수 없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만나자.” 은택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6차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쪽 운상도(72·가운데)씨의 남쪽 동생 운상희(69·오른쪽), 어머니 유순옥(95·왼쪽)씨가 감격스런 상봉을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서대모(59)씨는 북녘의 오빠 병채(73)씨 앞에 한보따리의 선물꾸러미를 풀어놓았다. 북녘의 피붙이를 생각하며 지난 30년 동안 가족들이 하나씩 모은 시계·양말·비누·치약·칫솔 따위가 그득했다. “남편이 전부터 그랬어요. 언젠가 통일이 될텐데 그때 북녘의 가족들과 나누어 쓸 물건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필 사든 북쪽 가족용으로 하나씩 더 사곤 했어요.” 그 선물들은 대모씨와 병채씨가 반세기 이산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었다. 북으로 간 병채씨 탓에 고향 광양 근처 해안에 북한의 공작원이 오기만 하면 정보기관에 끌려가고 문을 당해야 했던 병희(67)씨도, 신원조회에 걸려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병천(60)씨도 아득한 눈길로 할

아버지가 되어버린 형을 바라왔다. 남쪽의 여동생 신경애(71)씨 등과 만난 북녘의 탈영(72)씨는 김일성 주석의 통역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상봉장에 김 주석의 통역관 시절 사진과 함께 10여개의 훈장과 세 개의 메달을 가지고 나와 가족들에게 보여줬다. 이제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주름살 늘어도 형얼굴 알아봐”

김삼화씨 3남매 극적상봉

50년의 세월을 넘어 상봉한 3남매는 서로를 확인하고는 눈물 감고 말했다. 20일 단체상봉장에 나타난 북쪽의 김삼화(72)씨는 1948년 제주 4·3사건때 토방군을 돕다가 되레 공비(共匪)로 오인되는 바람에 가족들과 반세기을 헤어져 살아야 했다. 18세의 나이에 국군 포병대 지원병으로 차출돼 한라산 지리산을 안내하던 김씨는 소속부대가 कै뒀되자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진 주임에게는 동행증이 발급된 상태였고 통행증 없이 군복 차림이었던 김씨는 공비로 오인받고 말

제주4·3때 가족 이별

공비로 오인-北行택해

았다.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가 전장이 일어나자 ‘살기 위해’ 북쪽을 택했다. 동생 청재(67·여)씨와 동화(56)씨를 만나 예씨 의연한 척하던 김씨는 끝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동화씨는 “어머니는 ‘말이름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만 되뇌이다가 4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흐느꼈다. 그는 “당시 너무 어려서 힘 얼굴이 기억 속에 없었지만 첫눈에 활짝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서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형님은 단지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청재씨는 18세 청년의 등등했던 오빠를 떠올리며 단체상봉이 진행될 두 시간 내내 칠순의 오빠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삼민기자 21smin@segye.com

“살아 있었구나... 恨 풀었다”

南北이산 660명 혈육상봉

육로통해 금강산 도착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이산가족 육로상봉이 이뤄졌다.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상봉단 561명은 20일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한 고성항에 도착, 이날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북측 이산가족은 단초 100명이었으나 북측 신청자 증가(71·여)씨의 어머니 최영희(94)씨가

중환으로 금강산에 갈 수 없다고 알려와 99명으로 줄었다. 남측에서도 2명이 속초에 오지 않았고 2명은 건강문제로 방북을 포기, 4명이 상봉장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8시50분 속초를 떠난 남측 상봉단은 반세 내린 때쯤에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1시30분 북한 고성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동안 온정각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단체상봉을 하는데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환영만찬을 가졌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삼민기자



반세기만의 해후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장에서 남쪽의 어머니 정수현(왼쪽)과 북쪽의 딸 한경애씨가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법

이산가족 상봉 이모저모

20일 금강산에서 가진 제6차 이산가족상봉은 분단 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로 이동해 이뤄졌다. 하나같이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묻고 반세기를 살아온 이산가족들은 눈물 비포장길을 뚫고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 허겁지겁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나타냈다.

홀몸부부 말뚝이고 눈물

○...헤어졌던 북쪽의 남편 김경수(77)씨를 만난 이임노(77)씨는 눈시울을 붉히다 끝내 김씨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강산이 50년이나 변했는데 이제야...”라며 오열했다. 김씨는 “자비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날 찾았

구려”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김씨는 김형직사범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학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온 나라가 아는 정도로 삼공했다”고 자랑했다. 전쟁 당시 서울 중앙국민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가족들을 강일도 원주의 고향집에 내려보내고 근무하다 헤어지고 말았다.

○...“내가 널 만나려고 이제까지 살았나 보다.” 53년 만에 딸 한영애(71)씨를 만난 남측 최고령자인 장수천(97·여)씨는 북반치는 감정에 말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라는 랑씨의 말에 100살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끝내 말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6·25전쟁 당시 적십자병원에서 임시 간호원으로 일하던 랑씨는 1·4후퇴 때

인민군에 휩쓸려 북으로 올라갔다.

캠코더통해 소식 전하기도

○...남측 어머니 오매월(95)씨는 딸 송순영(72)씨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흔들려 가족들을 놀리게 했다. 다정히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오씨는 한동안 딸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남쪽의 남동생 수남(64)씨는 “어머니가 지난 50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헤어진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며 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힘 대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니...” 박학조(71)씨는 북의 동생 천조(68)씨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1950년 당시 15살이던 천조씨가 장수천 형을 대신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헤어진 지 반세기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형의 말에 동생은 “이렇게 만났으니 됐잖아. 나는 잘살

고 있어”라며 위로했다.

○...의용군으로 나간 장남 리은택(73)씨를 반평생동안 기다린 노모 박준복(95·여)씨는 거동이 어려워 가족상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캠코더를 통해 50년간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건넸다. “은택이 어미 아직 새상에 살아 있다”고 말문을 연 박씨는 “보고 싶은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몸이 불편해 내가 갈 수 없다. 생전에 다시 못 만나도 네 소식을 알았으니 이제는 원이 없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어머니의 기도문이라는 편지를 직접 써 보내기도 한 박씨는 뒷배이고 아들에게 잘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북측 아들 립동규(69)씨를 만난 어머니 김금남(95)씨는 이날 오후, 7시 만찬이 시작될 직후 할아버지 윤락 옆 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평소 고혈압을 앓아오던 김씨는 아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며칠동안 식사도 거른 채 지내 왔다고 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이삼민기자

대한매일

2003. 2. 21 (금)

“내 딸아 살아있어줘 고맙다”

육로 이산상봉 첫날... 97세 노모 71세 딸 잡고 오열

【금강산 공동취재단·홍원성기자】 반세기 동안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던 혈육들이 20일 금강산에서 눈물의 상봉을 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5개월 만이자, 육로통해 처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친척 461명과 북측 이산가족 99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두시간 동안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남측 최고령자인 장수천(97·여)씨는 53년만에 만난 딸 한영애(71)씨의 손을 잡고 북반치는 김경애에 말을 잊지

못하다가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 역사학과 교수 딸 장미진 김경수(77)씨를 만난 동갑내기 아내 이임노씨는 남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강산이 다섯번이나 변했는데 이제야...”라고 오열했다.

북측 딸 송순영(72)씨를 만난 어머니 오매월(95)씨는 딸의 얼굴을 보자 흔들렸고, 정신을 차린 뒤에도 말문을 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측 여동생 신경애(71)씨 등을 만난 신단영(72)씨는 김일성 주석의 흉영을 관상인으로 일러져 눈물을 흘렸다.

그는 상봉장에 10여개의 훈장과 세 개의 메달을 가지고 나와 “내가 주석님을 목격하는 영광을 네 번이나 가졌다.”고 자랑했다.

남측 상봉단은 이어 오후 7~9시 같은 장소에서 북측 가족들과 환영만찬을 함께 했다. 환영만찬에 앞서 최경식 북측 단장은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물었고, 이세을 단장은 “정신감란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wshong@daily.com

“왜 이제서야...” 눈물바다

이산상봉단 육로로 금강산행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섯 달 만에 또다시 금강산이 남과 북 이산 환유들의 상봉으로 눈물 바다를 이뤘다.

20일 오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이산가족 99명이 각각 남측의 아내와 아들, 딸, 형제, 자매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장수천 할머니(97)는 53년 만에 만난 북측의 딸 양영애 씨(71) 손을 잡고 북반치는 감정에 말을 잊지 못했으며, 어섯 살에 헤어진 북측 아버지 궤변곤 씨(80)를 다시 만난 아들 화희 씨

(59)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며 흐느꼈다.

아버지 별곤 씨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건강 추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아들의 답에 고개를 떨궜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로 금강산까지 온 남측의 이암노 씨(77)는 반세기 만에 만나는 북측의 남편 김경수 씨(77)를 보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곁에 있던 남측의 딸 영옥(54), 영신(52)씨는 “아버지, 아버지”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전쟁 당시 경북 영주의 고창집에서 남편 김상원 씨(71)와 헤어졌던 남측의 아내 박미자 씨(74)는 “왜 이제 나타났느냐”며 울먹였다.

김씨는 헤어질 당시 한살배기였던 외아들이 병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단체 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21일 개별상봉을 기억하면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 잠못 이루는 금강산의 첫날 밤을 보냈다.

이에 앞서 남측 이산가족은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 육로 상봉의 이정표를 세웠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금방 온다더니 50년만에 왔소”

6차 이산상봉 이모저모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첫날인 20일 오후 4시 단체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온정각은 50여년의 생이 발을 원망하면서도 서로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 하는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웃음이 2시간 동안 뒹뒹 뱉었다. 북측 상봉자들의 상당수는 한국전쟁 당시 10대 후반~20대 초반으로, 자의든 타의든 의용군으로 원북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남측 가족이 안 부를 묻자 “강강일 강군님 덕분에...”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으며, 일부는 남과 북의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은 미국 탓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

○...50여년의 긴 세월을 수절한 남측의 아내들은 꽃다운 나이에 헤어졌던 남편들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된 뒤에야 만날 수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금강산까지 온 남

긴세월 수절아내 남편품서 눈물
97세 노모 칠순딸 부둥켜안아
기도문 보내 北아들과 해후도



“내딸 맞구나” 남한에 사는 장수천 할머니가 20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에서 북한의 딸 양영애씨를 만나 너무 기쁘게 나머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시진공동취재단

측 아내 이암노씨(77)는 53년만에 만나는 북한의 동갑내기 남편 김경수씨(77)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강산이 다섯번 번졌는데 이제야...”라며 오열했다. 남측의 딸 영옥씨(51)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에게 “웃 사달라”며 어리둥둥을 피웠다.

북측의 남편 최익현씨(78)는 반세기만에 만난 남측 아내 안순애씨(78)와 처음에는 어색해 말도 못한 채 그저 앉아 있었다. 최씨는 사촌동생 인학씨(65)에게 가족의 이음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아내 안씨는 “아들 이름도 모르느냐, 서울에서 당신과 헤어지고 30년동안 딱장사를 해 키운 아들이다”고 소리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전쟁 직후 갑자기 사라진 아들과 딸을 50년 넘게 기다렸던 남측의 노모들은 교회들 남긴 자식들

을 상봉하자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다.

53년만에 북측 딸 양영애씨(71)를 만난 남측 최고령자 장수천 할머니(97)는 딸의 손을 잡고 북반치는 감정에 “내가 널 만나려고 이제까지 안죽고 살았나보다”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고, 딸 영애씨는 “어떻게 늙어서 여기까지 오셨느냐”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힘 대신 의용군에 끌려갔거나 공비로 오인돼 원북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이 교회들 남긴 백발로 나타났다. 남측 박학조씨(71)는 북측 동생 천조씨(68)의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구나, 힘 대신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전쟁 당시 열다섯살이던 동생 천조씨는 “형이 의용군에 가면 안돼. 가만 죽어. 형은 우리집 장손이고 몸도 약한데 죽으면 안돼. 내가 대신 죽어.

나는 작고 어리니까 도망나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1948년 제주 4·3사건때 도발권을 돕다가 공비로 오인되는 바람에 살기 위해 원북했던 북측 김상화씨(72)는 55년만에 여동생 청자씨(62)와 남동생 동화씨(56)를 만났다.

○...남측 박준록 할머니(95)는 기동이 불편해 금강산에 가지 못하게 되자 북측 아들 이은택씨(73)에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은택씨 동생은학씨(59)를 통해 보냈다. 박할머니는 비디오를 통해 “은택아, 어미가 아직 살아 있다. 보고싶지만 몸이 불편해 갈 수가 없다. 실사 생전에 못만나도 이제 원이 없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할머니는 비디오 외에도 “어머니의 기도문”이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캠코더로 만난 노모' 北아들 오열

• 6차 이산상봉 이모저모

상상 처음 육로 방북을 통해 이뤄진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일 금강산에서 시작됐다. 남측 상봉단 461명은 이날 오전 속초를 출발,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거쳐 방북했다. 이들은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이산가족 99명과 단체상봉을 가진데 이어 저녁에는 한영만찬에 참석했다.

○남측 최고령자인 장수천 할머니(97)는 53년 만에 북측의 딸 광영애씨(71)를 만나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영애씨는 서울 이화여고에 다니던 중 전쟁을 맞아 친구들과 서대문구 적십자병원에서 임시직 간호사로 일하다가 1·4 후퇴 때 북으로 갔다.

100살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한동안 밤도 못먹었다"면서 "주변에서 '건강해야 가서 딸을 만난다'고 권유해 손가락을 억지로 들었다"면서 딸의 몸을 쓰다듬었다.

남측의 박영주 할머니(91)는 북으로 간 딸 김덕희씨(72)를 50여년 만에 만나자, 얼굴을 어루만지며 "살아

서 너를 만나다니, 이게 꿈이나 생시냐"를 연발했다.

대구가 고향인 덕희씨는 서울 수도여대 1학년 때 전쟁이 난 뒤 소식이 끊어졌다. 박영주 할머니는 "지난해 5차 상봉행사에 참석했던 고향 사람들로부터 네가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53년 만에 북측 아들 임동규씨(69)를 만난 남측 어머니 김금남씨(96)는 아들과의 상봉이 떨어지지 않은 듯 "내 아들 동규가 닮나"며 아들의 손과 얼굴을 어루만졌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합체하여 모시고 함께 온 남측 동생 동환씨(67)는 "할님을 보고 눈을 감으시려고 오매 사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전쟁 발발 직후 전주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동규씨는 완주군 소양면 송공사로 어린 동생 세명을 피신시킨 뒤 전주 집으로 돌아오다 인민군에 붙잡혀 북에 끌려가게 됐다.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북측에 온 리은택씨(73)는 자신을 반평생동안 기다린 남측의 어머니 박준복 할머니(95)가 거동이 어려워 이번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신, 캠코더를 통해 "잘 살아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남북 이산가족 첫 육로상봉 감격

제6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가 20일 금강산에서 열려 남측 가족·친척 461명이 북측 이산가족 99명과 50여년만에 만났다.

남측상봉단(단장 이세웅 한적 부총재)은 오전 버스편으로 속초를 출발, 오전 11시30분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떨어진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거쳐 오후 1시 북측 장전항에 도착했다. ▶관련기사 5면

이들은 오후 4시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가족들과 단체상봉을 한 뒤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동만찬을 가졌다. 북측 이산가족은 당초 100명이었으나 윤기씨(71·여)가 만나기를 희망한 남측의 어머니 최명희씨(94)가 중환을 이유로 상봉을 포기했다.

이산가족들은 21일 오전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하고 금강산여관에서 함께 점심을 한 뒤 현대문화회관에서 교예공연에 관람한다.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오전에 온정각 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하고, 오후 1시30분 고성항을 출발해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춤으로 달랜 '이산의恨'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21일 금강산여관에서 오전후 통일악차 음악에 맞춰 열을 지어 춤을 추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남북가족 개별상봉
선물편지 주고받아

상봉 이틀째... 오늘 귀환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1일 오전 참가자들은 남측 가족의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2시간 동안 가족별로 상봉시간을 가졌다.

남북의 가족들은 각각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으며, 상봉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 등을 주고받았다.

이산가족들은 이어 금강산여관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저녁에는 온정각 휴게소 앞 현대문화회관에서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남측 상봉단 461명은 22일 오전 9시 북측 가족 99명과 작별상봉을 가진 뒤 금강산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오후 3시쯤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꽃봉오리로 헤어져
백발로 만나다니...”

• 이산상봉 이모저모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남북 이산가족 560명은 이날 가족별 상봉을 갖고 편지로, 선물로 분단 50여년간 단절됐던 정을 다사 이었다.

○...노모 권수경씨(92)가 마지막 하게 북쪽 손자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북쪽 아들 리광재씨(68)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말없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3년전 15살

나이에 의용군으로 북에 올라간 아들 리씨는 “어머니, 저는 지금 사회과학원에서 정치경제학 연구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며 하얀 면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를 달랬다.

북측 아버지 황병화씨(77)를 만난 남측 딸 명옥씨(58)는 “아버지 소식을 알고 내가 밤낮으로 짠 건데”라고 울먹이며 아버지 목에 목도리를 둘러줬다.

명옥씨는 “북쪽은 춥다고 해서 파카를 샀다”며 아버지에게 오리털 파카를 입혀주다 “아버지 체격도 몰라서...”라며 목이 잡혔다.

병화씨가 “다 늙어서 만났다. 시간이 하루밖에 없구나”라고 아쉬워하자 명옥씨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며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북측 형 김동인씨(69)와 남측 동생 동한씨(56)가 만난 해금강호텔 401호에는 선물보따리에 얽힌 이야깃거리가 피어났다.

김일성종합대 교수를 지낸 동인씨는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동인씨는 들쭉술과 담배에 이어 비단옷을 꺼내 들고 “10년전

어머니 환갑때 해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나 대신 어머니 묘소에 가서 보여드려라”라고 동한씨에게 당부했다.

북측 여동생 권혁수씨(69)를 끌어안은 남측 언니 권혁석씨(73)와 남동생 권혁씨(66)는 서로 부둥켜안은 채 얼굴을 어루만지고 뽀뽀를 베풀었다.

언니 혁석씨가 “꽃봉오리로 헤어졌는데 이렇게 백발이 다 돼서야 만나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자 혁수씨는 “언니, 그래도 마음은 하나도 늙지 않았잖아”라며 위로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시간이 하루밖에...” 아쉬움 선물 나누며 회한의 눈물만

남북가족 교예관람 '오붓한 시간'

금강산 이산상봉 이틀째

1 금강산 공동취재단·회원상기자
1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1일 남쪽 이산가족·친척 461명과 북쪽 이산가족 99명은 북측 교예(서커스)단 공연을 관람하는 등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50여년간 쌓아왔던 단장(斷腸)의 한(恨)을 조금씩 풀어냈다.

남북 이산가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측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2시간 동안 개별상봉을 가진 뒤 오후 1시 금강산여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현대문화회관에서 교예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이날 개별상봉에서는 이산가족들의 애뜻한 사연이 쏟아져 나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북측 남편 김경수(77)씨는 동갑내기 아내 이임노씨의 얼굴을 매만지며 "사랑했고 사랑해왔지."라고 말하자, 아내 이씨는 "서로 한 방에서 자야 했는데, 혼자 지낸 지난 밤 잠도 잘 못 잤다."며 지난 50년간 가슴에 묻어둔 통한(痛恨)의 정을 나눴다.

권수경(92·여)씨는 가족별 상봉 직전 직접 편을 들어 북쪽에 있는 손자들에게 편지를 쓴 뒤 북쪽 아들 이평재(68)씨 앞에서 읽었다. 권씨는 "나는 그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아들 셋을 잊을 날이 없었다. ... 잠 잠손도 잘 있어 통안되는 날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 이씨는 "어머니, 저는 지금 사회과학원에서 정치경제



21일 오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제6차 이산가족상봉 이틀째 개별상봉에서 북측의 아들 이평재씨가 남측에서 온 어머니 권수경씨를 업고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금강산 인추영기자 yja@kdaily.com

학연구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라며 달랬다.

북측 아들 황의술(73)씨는 부모님의 빛바랜 영정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뵙습니다.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라며 절을

드리던 중 갑자기 목놓아 울었다. 그동안 부모님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황씨는 "늦게나마 자식의 도리를 찾고 싶다."며 부모님의 영정을 모셔가기로 했다.

◀ wshong@kdaily.com

“이제야 온 불효자식 용서를”

이산상봉 이틀째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틀째인 21일 남북 이산가족 560명은 금강산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두 시간 남짓 가족단위의 개별 상봉을 갖고 애타한 혈육의 정을 나눴다.

50代 딸은 아버지께 큰절

○...“사랑하는 손자손녀들 보아라. 세월이 무상하여 53년이 지나...” 92살 노모가 나지막히 읽어간 편지에는 북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킁킁 뿜어 있었다. 북측 아들 리평재(68)씨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53년 전 의용군으로 북에 올라간 리씨는 노모의 안타까움을 단래리는 듯 “어머니, 저는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를 하며 잘살고 있고 손주들도 모두 장성해서 잘 있습니다”라며 노모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사랑했고 사랑해왔지” 53년만에 아내 이임노(77)씨를 만난 북측의 남편 김경수(77)씨는 이젠 다 늙어버린 이씨의 얼굴을 매만지며 그렇게 말했다. 이씨는 “서로 한방에서 자야 했는데 혼자 지낸 지난 밤 잠도 잘 못 잤다”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던 딸 영숙(57)씨과 영신(55)씨는 50여년만에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다.

부모 영정앞에서 눈물만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뵈



아쉬운 손길 제6차 이산가족상봉 이틀째인 21일 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한 북측 가족이 숙소로 출발하기 앞서 아쉬운 듯 남측 가족과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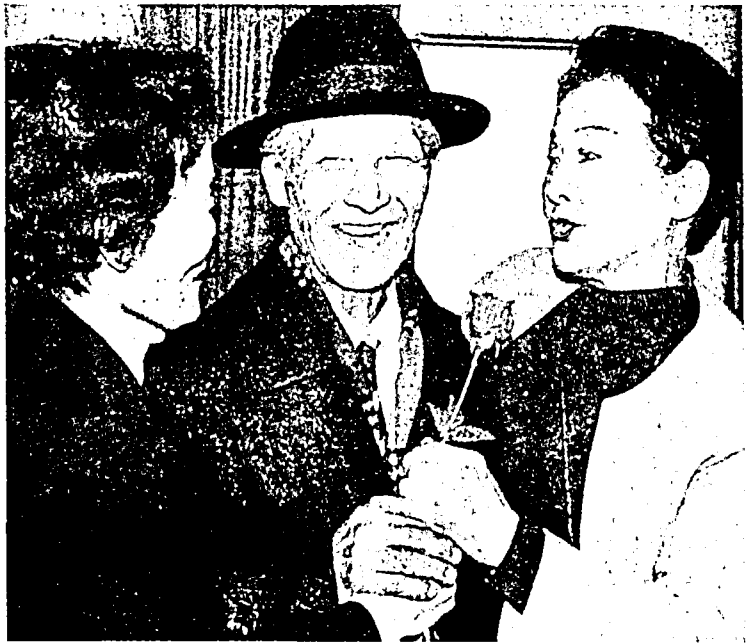
습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53년만에 아버지에게 바치는 제사상 앞에서 북의 아들 황의술(73)씨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비록 부모님의 빛바랜 영정과 들

쪽술 한잔뿐인 단촐한 제사상이었지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제사를 올리게 돼 더욱 서러웠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이상민기자
21smin@scgye.com

매일경제

2003. 2. 22 (토)



남쪽 누나 북쪽 동생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를 맞아 개별상봉이 해 금강호텔에서 있었다. 남쪽 누나인 하상남 씨(오른 쪽)가 북쪽 동생 하상의 씨에게 영원히 사랑이 변치말자며 장미꽃 한송이를 전달 하고 있다. ▶관련기사 31면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2003. 2. 22 (토)

■ 이산상봉 이틀째 표정

분단 반세기, 잔인한 고통의 세월이 잠깐의 만남으로 보상될 순 없지만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편지와 선물을 나누고 아득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분단의 상흔을 조금씩 지웠다. 하루 뒤면 다시 헤어지게 돼 있어 그만큼 애뜻함이 더했다.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21일 남북쪽 가족들은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두 시간 남짓 가족별 상봉을 했다. "서로 한 방에서 자야 했는데 혼자 지내면서 밤잠도 잘 못 잤다." 이임노(77)씨의 누두리에 북녘의 남편 김경수(77)씨 "사랑했고, 사랑해 왔지"라며 손을 꼭 잡았다. 황명옥(58)씨는 할아버지가 돼버린 북녘의 아버지 병화

정성담은 선물·편지 교환 어릴적 기차놀이를 흥돋워

(77)씨에게 거울 옷과 손수 짠 목도리를 건넸다. "북쪽은 춥다고 해서 파카를 샀는데, 아버지 체격을 몰라서 ..." 병화씨는 들쭉술과 비단식탁보 등 준비해온 선물을 딸에게 쥐어준 뒤 "다 늙어서 만났다. 시간이 하루밖에 없구나"라며 아쉬워했다.

아흔들의 권수경씨는 북녘의 아들 리경재(68)씨에게 한번도 보지 못한 손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건넸다. "사랑하는 손자손녀들 보아라. ... 할 말은 많으나, 늘 너희들 잘되고 통일을 빌며 이만 그친

다. 참 장손도 잘 있어 통일되는 날 만나기를 바란다 ..."

금강산여관에서 이어진 점심식사 때 남북의 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어릴적 기차놀이를 하며 '통일 열차'를 만들어냈다. "조국통일호 달려요, 빨리 타세요, 부산까지 갑니다." 노인들은 어린이처럼 껍짝게 '기차'에 올라탔다.

남쪽 이산가족 461명은 22일 오전 온정각 휴게소에서 작별상봉을 한 뒤 남쪽으로 돌아온다.

이재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금강산 육로관광 '지각 출발'

어제 상봉단 등 303명 방북
北 변덕... 부정기운행 가능성

지난 21일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가 무산된 금강산 육로관광이 23일 204명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산가족 2차 상봉단 99명도 이들과 함께 육로를 이용, 방북했으며 앞서 지난 20일 육로로 방북한 상봉단 1진은 지난 22일 오후 육로로 귀환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5일에는 관광객 611명이 육로관광을 실시할 예정이며, 27일엔 지난 21일 출발하지 못한 관광객중 원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의 경우 동해선 본도로와 철도공사상황을 보며,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육로 관광이 일단 시작은 됐지만,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북측이 지난 21일 관광 인기를 요청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측은 북측이 관광버스가 다니는 임시도로 옆 본도로의 밤과 작업으로 불과 휴이 임시도로 위를 덮었기 때문이라며, 23일부터 육로 관광을 정상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측이 금강산 관광요금 중 자신들에게 넘어올 관광대가(2001년 1인당 50달러로 구두 합의)를 인상하기 위한 협상차원이거나, 군부의 반발로 인한 것이라면 육로관광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일 15회 정기출발 대신 주 1~2회씩 부정기 출발 형태의 관광이 이뤄질 수도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23일 금강산 여관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박규순씨가 72년 오대양 61호를 타고 서해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아들 김태준씨를 열싸안고 있다. ◇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진영신기자 soonyh@donga.com

남북 31년만에 모친 상봉

23일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여관에서 박규순씨(오른쪽)가 72년 오대양 61호를 타고 서해에서 고기를 잡던 중 납북된 아들 김태준씨와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한매일

2003. 2. 24 (월)

"네 형은 어디가고 너 혼자만..."

72년남북 아들 상봉 박규순씨

"건강하던 네 형은 어디로 갔나... 지금까지 너희들 보려고 살아왔다. 네가 우리 큰아들 의준이 아들이나, 의준아, 태준아..."

지난 72년 서해에서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아들 김태준(49)씨를 만난 박규순(76·경남 거제시 장목면)씨는 함께 납북됐다 사귀던 말아들 의준씨와 태준씨 이름을 울부짖듯 부르며 30년간 접어온 아픔을 풀어냈다.

23일 이산가족 상봉 2진으로 98명의 다른 이산가족과 함께 방북

한 박씨는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단체상봉장에서 며느리 박화실(46)씨, 손녀 은정(14)양, 숨진 큰아들과 북한에서 결혼한 며느리 백숙찬(54)씨, 손자 백남(24)씨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태준씨는 "형이 건강하게 지내다 5년전 뇌출혈로 숨졌다."고 전하고 "북에서 군 책임간부로 잘 살고 있다."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날 거제 포루수용소에서 남측을 선택한 김봉용(80)씨가 북측 딸을 만나는 등 남과 북의 가족들은 단체상봉과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이산의 한을 달랠다.

◇ 금강산공동취재단·김수정기자



남북어부, 어머니 상봉

2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1972년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잡이하러 나갔다 남북된 북측 아들 김태준씨를 남측 어머니 박규순씨가 열싸안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어디보자... 정녕 내아들 맞냐”

이산가족 2진상봉

1972년 12월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잡이하러 남북된 아들 김태준(49)씨를 23일 금강산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극적으로 만난 박규순(76·경남거제시장북면) 할머니는 아들을 부여잡고 복을 놓았다.

할머니는 태준씨와 함께 남북됐던 큰아들 의준씨가 안 보이자 “의준이는 어데 갔노”라며 그만 울먹 울먹하며 울었다. 의준씨는 8년 전 뇌출혈로 노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잡시 후 일어난 박 할머니는 큰미느리 백숙찬(54)씨와 손자 백남

(24)씨, 태준씨와 아내 박화실(46)씨, 손녀 은정(13)양을 부둥켜안은 채 “의준아, 태준아”라고 외쳐댔고 옆에 있던 손자 백남씨는 “할머니, 고장하세요”라며 다독거렸다.

72년 남북 김태준씨 가족 노모상봉 兄 의준씨는 北서 사망... 한맺힌 통곡

박 할머니는 31년 전 두 아들이 남북된 후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처절한 삶을 꾸려왔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2남녀를 키우던 박씨에게 생계로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던 두 아들의 남북은 청천벽력이었다.

그런데다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보다는 남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연좌제 등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왔다.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가출해 버린 딸은 10여년 전 발췌 나타나 갖 태어난 손자만 안겨두고 또다시 사라지는 비운의 연속이었다.

15년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한달에 2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는 박 할머니. 하지만 정성스레 접피와 청바지, 속옷 등을 준비해왔다. 그가 살고 있는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에는 80여가구 중 납북자 가구만 11가구에 14명에 이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cgye.com

6차 이산상봉 2진 금강산서 가족 만나

제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2진으로 나선 남쪽 상봉단 99명이 23일 금강산여관에서 북쪽의 가족 193명을 만났다.

1972년 12월 서해에서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됐던 김태준(49)씨는 30여년 만에 남쪽 어머니 박규순(76)씨를 만났다. 김씨는 함께 고기잡이하다 '납북'된 형 의준씨는 '8년 전에 잡자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6차 상봉의 경우 납북자 다섯 가족과 국군포로 다섯명의 생사 확인을 북쪽에 요청했으나 태준씨만 생존이 확인돼 상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병혁(71)씨는 북녘의 여동생 병숙(65)씨를 만나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중앙로역에서 사고 발생 15분 전에 지하철을 탔다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살펴주셨다"고 말했다. 남북 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24일 오전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비공개 개별상봉을 한뒤 금강산여관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금강산/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일반인 대상 금강산 육로관광길에 오른 관광객들이 23일 오후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남쪽 출입관리연락사무소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고성/연합



감격의 재회 23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 단세상봉에서 남쪽의 박규순 할머니(76·강남 거제시)가 지난 72년 오대양 61호를 타고 서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납북된 아들 김태준씨(49)와 감격의 재회를 하고 있다. /금강산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일보

2003. 2. 24 (월)



다시 만난 남북어부 母子 23일 북한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박규순씨(가)가 1972년 오대양61호를 타고 서해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아들 김태준씨를 만나 기뻐하고 있다. <관계기사 10면> 사진공동취재단

朝鮮日報

2003. 2. 24 (월)



◇72년 피랍선원, 어머니 상봉 23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남북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남측에서 세 번째(가)가 72년 오대양 61호를 타고 고기를 잡다 납북된 아들 김태준(왼쪽에서 두 번째)씨와 북의 손자 백남(왼쪽)씨, 손녀 윤정씨와 열씨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2003. 2. 24 (월)



남북어부 어머니 만나 1972년 납북된 어선 오대양 61호 선원 김태준(왼쪽)씨가 23일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6차 남북이산가족 단체상봉에서 어머니를 만나 같은 표용을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55년만에 겨안은 남매 “어서오너라, 아침먹었니”

• 상봉단 2진 개별상봉

제6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으로 방북한 남측가족 99명은 24일 북측 가족·친척 250여명과 개별상봉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점심을 함께한 뒤 오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교예를 관람했다.

○...해금강호텔에서 열린 개별상봉에서 남측 강관호

씨(67)는 북측 어머니 원음전씨(86)가 노환으로 단체상봉에 이어 개별상봉에도 나타나지 못하자 답을 잊지 못했다. 강씨는 때마다 명절이 되면 관문점 망향각에서 부모님 제사까지 지냈다고 했다.

강씨는 북측 동생 관식(66)·공옥(64)씨와 손을 잡고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준비해왔다”면서 남측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수의를 건넸다.

북측의 이만수씨(80)는 한살때 헤어졌던 남측의 딸 명숙씨(58)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엄마의 얼굴을 그대로 떠담았다”면서 생전의 부인 모습을 회고했다.

이에 명숙씨는 “이렇게 만나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흐느꼈다.

○...6·25 이전인 1948년에 일산으로 시집왔다가 부모 형제들과 이별을 하게 된 남측의 권형택씨(74·여)는 상봉예정 시간을 2

**한살때 헤어진 딸 얼굴보며
‘엄마 꼭담있네’ 부인 회고**

분여 넘겼으나 북측의 동생들이 들어오지 않자 “오긴 오는 거냐”며 안절부절못했다.

잠시후 동생 총택(71), 순옥(68·여), 진택(65)씨 등 3명이 “누님” “언니”라고 반갑게 부르며 격실로 들어서자 권 할머니는 “어서오 너러라, 아침은 먹었니”라며 동생들을 외락 끌어안았다.

경기 장단군 대강면 우군리가 고향인 권 할머니는 “일산에서 서울보다 고향이 더 가까운데 55년만에 만나니...”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경향신문

2003. 2. 25 (화)

한겨레

2003. 2. 25 (화)



24일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고 있는 금강산 여관에서 북측 여동생 최순정씨가 53년 만에 만난 오빠 최병길(86)씨에게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 취재단

입맞춘듯 北체제선전... 한때 마찰

이산가족 2진 개별상봉

제6차 이산가족 2진 99쌍이 24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과 개별상봉을 갖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기약없는 이별의 한을 달랬다.

하지만 일부 개별상봉장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취재

허용시간을 앞당기면서 남측 취재진과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입을 맞춘 듯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선전에 주력하면서 이산상봉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4일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고 있는 금강산여관 오찬장에서 북측의 최순정(왼쪽)씨가 53년 만에 만난 오빠 병길씨에게 떡을 먹여주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어머니 영정안고 통곡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북측 어머니 원음전(86)씨의 생존소식에 금강산까지 달려온 강관호(67)씨는 원씨가 노환으로 단체상봉에 이어 개별상봉에도 나오지 못하자 어머니의 사진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명절마다 임진각 망향각에서 부모님 제사를 모셨다는 강씨는 동생 관식(66), 광옥(61)씨에게 "다시는 못할 것 같아 준비해왔다"며 조용히 어머니의 수의를 건넸다. 강씨와 두 동생은 손을 꼭 잡은 채 "어머니 구수는 꼭 같이 모시자"며 50여년을 뛰어넘은 합류의 정을 다졌다.

선물 나누며 혈육의 정 확인

○...남측 김희원(72)씨는 피바다 가극단 출신 인민배우인 여동생 기원(67)씨가 한복을 차려입고 들어서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고마워했다. 기원씨는 북한 고려자기와 자신이 출연한 피바다극단 공연 테이프를 전달하면서 "풍일추 언니를 객석에 앉히고 공연한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kidong@segye.com

한겨레

●이산가족 상봉

국민의 정부는 우리 이산가족에게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헤어졌던 가족의 50년 만의 해후, 장님 그 만남의 시간이 지나면 도라하는 그런 유와는 께를 달리했던 벽 찬 감격이었다. 2000년 8월15일, 16살에 의용군으로 차출되어 간 형님은 북에서 계관시인이 되어 림자 앞에 나타났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채계와 아님이 다른, 그리고 문화마저 변모해 버린 북녘사회의 현실이 이제 합류간의 해후로 표현되기 직전, 어쩔 수 없이 엄습해 올 민족적 이질감 앞에 우리는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그러나 형은 끝까지 포용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의 더운 체온 그리고 눈물은

눈물로 화해는 시작됐다

같이 많은가'라며 단념을 기뻐했다. 형은 분명 우리 안에 내재한 수많은 이질성 가운데서 동일성을 찾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면 눈물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는 형은이다. 한 번에 100명의 지극히 적은 만남의 폭은 다치 못 달리 애타계 기다리던 비 대신 양수기로 겨 울린 소량의 물일텐데, 그래도 우리는 그 귀한 물을 재일 먼저 마셨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첫 상봉 때 텔레비전은 온통 눈물바다였다. 이산의 아픔을 갖지 않은 시청자는 한국의 텔레비전은 왜 우는 장면은 그토록 긴 시간

방영하는가' 하며 의아해했다. 답은 간단하다. 이별의 반세기가 그토록 길었기 때문이다. 이산이 국민 드무의 아픔이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좀더 더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육로 권공의 시대가 열렸다. 하루속히 연희소가 설치되어 금강산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리운 혈육을 만나게 될 날을 획수고대한다. 북한에선 기후 때문에 생선이 불가하다는 건감차라도 형남에게 보내고 싶다. 풍일은 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적 봉합은 봉합의 에너지가 소

멸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화학적 결합이 어야 한다. 빗기가 북한 형의 딱내달 은하를 아무 제약 없이 눈물과 사랑으로 포용할 때 통일외 첫 단추는 끼워지는 것이다. 연희소 설치나 서신 교환의 조기 실현은 결코 감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권치게 될 국정을 우리 일천만 이산가족은 살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선거기간 중 우리는 노 후보가 흘리는 눈물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다. 그 눈물 속에는 혈육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도 같이 녹아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오찬재/서울시립대 교수



“언제 다시 만날까” 이산상봉 2진 귀환

50년 이산의 한(恨)을 달래기에 2박3일은 너무나 짧았다.

제6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 99명은 25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친척 193명과 작별상봉을 갖고 금강산 육로를 통해 속초로 귀환했다.

이로써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두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산가족상봉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작별 상봉장에는 ‘아버지, 부디 오래 사셔야 돼요’ ‘형님, 통일돼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회한의 울부짖음이 금강산 계곡에 메아리쳤다. 이산가족들은 서로 얼싸

사진촬영등 마지막 정 나뉘 끝까지 아쉬운듯 손 놓을

안고 사진을 찍거나 주소를 교환하면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할육의 체취를 느끼려는 듯 떠날 줄 몰랐다.

박간성(70) 할머니는 북측 남편인 남궁교(76) 할아버지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으며, 남궁 할아버지는 “전화로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살아 있어주요, 면회소가 만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게요”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강건홍(78) 할아버지의 북측 아들 기준(63)씨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아버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오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산상봉단은 버스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 ‘다시 만나요’를 부르며 재회를 기약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김기동기자



◇“꿈엔들 잊힐리야”... 아쉬운 이별

제6차 이산가족상봉 마지막 날인 25일 금강산여관을 떠나는 남측 이산가족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어 다시 헤어지게 된 북측 가족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차 이산상봉단 ‘아쉬운 작별’

한겨레

2003. 2. 26 (수)

어제 동해선 도로로 귀환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2진으로 참가한 남측 가족 99명이 25일 북측 가족 193명과 2박3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돌아왔다. 이로써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6차 이산 상봉이 모두 끝났다.

남북 가족들은 이날 헤어지기여 앞서 오전 9시부터 1시간 남짓 금강

산여관에서 눈물 속에 안타까운 작별인사를 나눴다. 남측 김덕진(79)씨는 23일 첫 만남에서 노인성 치매로 북측 동생 양진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날 동생을 알아보고 ‘헤어진다니 정말로 안타깝다’며 끼고 있던 금반지를 건네줬다. 북측 강기준(63)씨는 상봉기간 내내 서먹하게 대했던 남측 아버지 건홍(78)씨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경향신문

2003. 2. 26 (수)



“언제 다시...” 금강산 작별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제6차 이산상봉에 참여했던 남측 이산가족들이 25일 오전 금강산여관 앞에서 버스에 탑승,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민 채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東亞日報

2003. 2. 26 (수)



“다시 볼 날 있겠지”

금강산=전영인기자 trans@donga.com

25일 제6차 남북 이산가족 마지막 상봉행사를 마치고 금강산여관을 떠나는 이산가족들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일보

2003. 2. 26 (수)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까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마친 남측 가족들이 25일 버스 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북측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003. 1. 26 (일)

6차 이산상봉 남북 후보명단 교환-2(끝)

한적은 이날 컴퓨터 추첨을 거친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은 그간의 5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200명의 명단을 새롭게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이날 전달해온 이산가족 명단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8명(79%), 여자가 42명(21%)이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149명(74.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50명(25%), 80세 이상이 1명(0.5%)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1명, 경기 31명, 강원 21명, 충북 20명, 충남 20명, 전남 14명, 전북 8명, 경남 7명, 제주 5명, 대전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1명, 함북 1명, 양강도 1명, 중국 2명이었다.

우리측이 보낸 이산가족 후보자는 80세 이상이 95명(47.5%), 70대 84명(42%), 60대가 21명(10.5%)으로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신지역은 황해도가 50명, 평남 37명, 함남 26명, 평북 22명, 경기 8명, 함북 7명, 강원 4명, 기타지역 46명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60명, 경기 54명, 인천 13명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13명, 부산 10명, 경남 10명 강원 9명 순이었다.

정부와 한적은 이날 북측 후보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남측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 작업 등에 들어갔다.

kjih@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하기환씨

(아산=연합뉴스) 정태진기자 =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끌려간 형님이 최근 이북에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정작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꿈만 같아요"

27일 막연하게 살아계시라 믿었던 큰형 하경환(73)씨가 북한에서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둘째 동생 기환(64.아산시 배방면 구령리)씨는 벌써부터 형을 만날 날을 손꼽고 있다.

동생 하씨는 집에서 농사를 짓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혼자 의용군으로 끌려간 형님이 50여년이 넘도록 소식이 끊기자 가족 모두 만나기를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왕래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형님이 북에서 찾고 있으니 만나겠느냐는 제의가 왔으나 어려운 농촌 살림에 만나기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형님 소식에 1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더욱 난다"며 "조금만 일찍 찾으시지..."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jtj@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가창호씨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 "죽은 줄만 알았던 작은 형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북측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온 제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에 작은 형 가영환(73)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27일 접한 가창호(69.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구)는 기쁨에 목이 메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 모두 영환씨가 전쟁 중에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누나가 있던 인천으로 가 명절 때에만 몇 번 집에 들렀던 영환씨는 6.25 때 의용군에 끌려간 뒤 완전히 소식이 끊겼었다.

창호씨는 "당시는 나이가 어려 형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척 궁금하다"며 "영환이 형을 늘 그리워 하던 돌아가신 부모님과 큰 형이 살아서 그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느냐"며 아쉬워했다.

가씨는 "다음달 말 금강산에서 있을 이산가족 상봉에는 누이와 동생 등 가급적 많은 가족들이 가 그리운 형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가씨의 누이와 동생 등은 인천과 태안, 당진 등에서 살고 있다.

jchu2000@yna.co.kr
(끝)

<이산가족 南상봉대상>-송평임씨

(대전=연합뉴스) 정운덕기자 = "1차 생사확인 이후 이제나 저
제나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만날 수 있겠지요"

남북 적십자사가 26일 교환한 제6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상봉
북측 후보자 200명에 오빠 송재경(68)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송씨
의 동생 평임(61.여.대전시 서구 도마동)씨는 기뻐하면서도 그동안
의 세월이 야속한 듯 북받쳐 오르는 설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임씨는 "20여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재경(再慶)이
라는 이름 그대로 경사가 두번 있을 테니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
고 하셨는데 결국 그토록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
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평임씨 가족에게 한국전쟁은 너무나 가혹한 상처를 남겼다.

재경씨가 17살 어린 나이로 의용군에 입대한 반면 형 재석(71)
씨는 전쟁이 끝난 뒤 고향인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서 대둔산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여, 형제가 비록 전장에서는 아니지만 적으로 갈라서
기도 했다.

더욱이 재석씨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게 됐으며 지금도 돌보는 가족도 없이 요양원에서 지내
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버지 국현씨는 둘째 아들은 의용군으로 간 뒤 소식이 끊기
고 큰 아들은 우울증에 걸리자 화병으로 운명을 달리 했다.

그동안 평임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죽은 줄로만 여겼던 재
경씨가 2000년 10월 남쪽 가족들의 생사확인을 의뢰하면서 재경씨는
반세기 세월을 거슬러 가족의 품으로 들어왔으나 이후 수차례 실시
된 이산가족 상봉에 끼지 못해 가족들은 2001년 3월 재경씨로부터
편지와 함께 온 사진을 통해 얼굴을 보게 된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
다.

평임씨는 "너무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진을
보니 왠지 마음이 끌리는 것이 혈육은 어쩔 수 없나보다"며 "이산가
족 상봉장면이 방송될 때마다 오빠 사진을 꺼내놓고 많이 울었는
데 이번에는 반드시 만나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이산가족 南상봉대상>-남복자씨

(옥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 "꿈에 그리던 오빠 얼굴을 한 번 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텐데... 이번에는 정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북측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온 제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남규선(74. 집 이름 경렬)씨의 여동생 복자(69. 집 이름 복란.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85-2)씨는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오빠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떠올리며 상봉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

2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샅는데 정작 고대하던 상봉은 이뤄지지 않은 채 벌써 두 해가 흘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확실할 것'이라는 기자의 말에 안도한 복자씨는 50여 년 만에 만나게 될 오빠 생각에 기구한 가족사를 회상하며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단란하던 가정은 6.25전쟁과 함께 풍비박산났다.

북에서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다든 셋째 오빠 규선씨의 행방이 끊긴 것도 그때다.

그녀는 "둘째 오빠가 '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머니와 큰 오빠는 '빨갱이'로 몰려 붙들려갔고 서울 서 직장생활을 하던 규선 오빠도 그 즈음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 아버지와 큰 오빠, 남동생이 집에 남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렸으나 아버지와 큰 오빠는 20여년 전 돌아가시고 현재 남동생 경식(6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곡3동 348-20)씨만 살아 있다"고 한 많은 가족사를 들려줬다.

복란씨는 "오빠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살아 있다는 말조차 믿을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오빠를 만나 집 나간 자식 걱정에 눈조차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 1. 27 (원)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김해정씨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 "부모님은 장남인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다 돌아가셨는데...."

오는 2월 20일 북쪽에 사는 큰오빠 김홍정(68)씨를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 해정(64.강릉시 노암동)씨는 27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기쁨과 아쉬움의 눈물부터 흘렸다.

김씨는 "아버지 김병두씨와 어머니 함명옥씨는 헤어진 큰 오빠를 기다리다 오빠와 헤어졌던 당시 살던 그곳에서 지난 80년대 모두 그리움만 안고 돌아 가셨다"며 슬퍼했다.

또 이번에 오빠가 찾는 가족중 남동생 돈정씨는 이미 5살때 죽었고 가족과 헤어진 뒤로 순정, 월정 등 두 여동생이 새로 생겼다.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는 홍정씨의 바로 아래 동생 연정(66)씨는 "형과의 만남을 앞둔 이번 설은 어느 해보다 훈훈하고 풍성할 것"이라며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더욱 좋아하셨을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yoo21@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김남선씨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이 반가운 소식을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제6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상봉의 북측 후보자에 포함된 김남용(71)씨의 남동생 남선(67.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는 50여년간 소식이 끊긴 형님이 북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은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남선씨에 따르면 김두석(지난 95년 사망), 안택현(지난 92년 사망)씨 부부 슬하 5남매 중 맏이인 남용씨는 먼저 서울로 간 부친을 따라 상경, 서울 경동중학교 5학년 재학중인 6.25전쟁 발발 직후 행방불명됐다.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전쟁중에는 물론 전쟁이 끝난뒤에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남용씨의 행적을 찾아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남선씨는 "형님이 서울에 올라가 살다가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일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마음고생을 하신 일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며 "20여년전 일본에 있는 친족을 통해 형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나 사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반가워 했다.

남선씨는 상봉이 실현되면 동생 남순(61.서울시 화양동), 지순(여.51.제주도 북제주군 함덕리)씨와 함께 형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눌 예정인데 5남매 중 셋째인 남익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jphong@yonhapnews.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우종필씨

(평택=연합뉴스) 신영근기자= "안 죽었을 줄 알았어. 이제 얼굴 한 번 보면 원이 없겠네"

27일 남북한 적십자사가 교환한 제6차 이산가족 북측 상봉 후보자 명단에서 남편 리대인(80)씨의 이름을 확인한 우종필(78.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씨는 남편의 생존 소식에 먼저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전쟁 전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남편은 전쟁 중 서울 나들이에 나선 이후 소식이 끊겨 지금까지 우 할머니의 속을 끓여 왔다.

"워낙 똑똑한 양반이라 어디서든 잘 계실거라 믿었어. 그래서 남들은 제사라도 지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런 믿음 때문에 1970년대 중반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딸 셋을 어렵사리 부양하면서도 늘 남편을 잊지 않고 생활해왔다.

헤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남편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 할머니는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야. 난 알아볼 수 있을거야"라고 말했다.

우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꼭 한 번 얼굴 봤으면 좋겠어. 비록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판문점이든 금강산이든 문제 없이 갈 수 있으니까"라며 활짝 웃었다.

drops@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김흥준.광준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 "살아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여동생이 북에서 우리를 찾는다니...(살아있어)너무 감사합니다"

27일 북측이 대학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온 제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에 김자양(71.여)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의 오빠 흥준(75.부산시 연제구 연산동).광준(74.남구 용호동)씨 형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7남매중 6째인 자양씨는 가족들과 헤어진 6.25전쟁 당시 경남 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자양씨는 한강다리가 폭파되기 직전 사촌들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북통으로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서 반세기동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됐다.

전쟁으로 줄지에 자식과 생이별을 한 아버지 김봉룡씨와 어머니 우소숙씨는 생사조차 알길이 없어 눈물로 지세우다 각각 지난 1978년과 1968년 눈을 감으면서 자양씨를 꼭 찾으라고 유언도 남겼다.

흥준씨 형제와 사촌들은 자양씨가 혹시 북에 생존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지난 2001년 10월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도 했으나 여동생의 존재 여부는 알지 못했다.

흥준씨는 "여동생이 언니와 오빠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했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며 어렴풋이 기억했으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쟁때 해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다는 광준씨는 "서울의 하숙집과 학교 등을 돌아다니며 여동생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만나면 '살아있어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측에 생존해 있는 사람은 흥준씨 형제와 막내 문준(68)씨 등 3명이다.

ccho@yna.co.kr

연합뉴스

2003. 1. 27 (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김창복씨

(괴산=연합뉴스) 변우열기자 = "지하에 계신 할머니도 이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 남북한 적십자사가 교환한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에 삼촌 김영달(57)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을 접한 창복(47.전남 여수시 교동)씨는 몇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6.25때 가족들이 함께 피란길에 올랐다가 삼촌과 헤어진 할머니는 평생 삼촌을 잊지 못하고 한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창복씨는 "명절때만되면 할머니는 가족들과 삼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짓곤 했다"며 "할머니는 생전에 삼촌이 꼭 살아있을 거라며 삼촌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기뻐했다.

또 "얼굴도 모르는 삼촌이지만 할머니를 대신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인다"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도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에는 누나 영득(70)씨와 형수 신명우(78.창복씨 어머니)씨가 고향인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 생존해 있다.

bwy@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8 (화)

<이산가족 南측후보>-조창환씨

(김포=연합뉴스) 김명균기자= "워든지 보낼 수만 있다면 다 보내고 싶습니다"

황해도 연백에서 부인 권순애(74)씨, 딸 명희(54)씨 등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다 6.25 전쟁으로 인해 23살의 나이에 홀로 남한 땅에 남게 된 조창환(75.김포시 운양동)씨는 다음달 20일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6.25 당시 국군 방위군 초대장을 맡았던 조씨는 1.4후퇴 직전 동료 군인들을 인솔, 남쪽으로 내려온 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

부인과 딸, 여동생 옥선(73)씨와 정애(70)씨, 그리고 막내동생인 주환(65)씨의 모습을 그리며 많은 눈물도 흘렸다.

6년여의 군생활을 하면서 조씨는 재혼을 하게 됐고, 2남1녀를 둔 가정으로 가정을 꾸리면서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 절로 죄책감에 빠져들곤 했다.

수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신청 끝에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남측 후보로 통보받은 조씨는 북받치는 회한에 젖어들었다.

조씨는 "이번 설은 내 생애에 큰 의미를 갖는 명절이 될 것"이라며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기뻐했다.

kmg@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8 (화)

<이산상봉 南측 후보>-임한흥씨

(시흥=연합뉴스) 김인유기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100살이 넘는데 심중팔구 돌아가셨겠지...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다음달 20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남측 후보로 선정된 임한흥(80.경기도 시흥시 포동)씨는 부모님 생각에 벌써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개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로 통학하던 임씨는 1.4 후퇴때 복학하려고 서울에 갔다 그대로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다.

임씨는 이후 막내동생과 함께 50여년이 넘는 세월을 부모님을 가슴에 묻은 채 다시 만날 날만을 그리며 살아왔다.

임씨는 "헤어질 때에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병환으로 건강이 안좋으셨다"며 "하루하루 살면서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괴롭고 아팠다"고 말했다.

임씨는 북에 살고 있을 동생 임순희(77.여)씨, 임씨의 딸 임복희(44)씨, 매제 임영규(83)씨, 큰 형님의 자녀인 임도상.준상.정희씨를 찾고 있다.

임씨는 "동생 순희가 살아있다면 부모님 소식을 알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든 살아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들려 주겠지"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8 (화)

<이산상봉 南측후보>-박은식씨

(평택=연합뉴스) 최찬흥기자= "재혼을 하며 헤어진 6살배기 딸애가 어느덧 환갑이 됐네요. 시댁에서 데려갈 때 울며 옷소매를 잡고 매달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산상봉 남측후보 박은식(81.여.평택시 팽성읍)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난 딸 이충심(63)씨를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가 딸과 반백년 이상 헤어진 것은 전 남편이 일본으로 징용을 간 뒤 일본여자와 결혼, 귀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5살된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 산촌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다 재혼을 하게 됐고 무심하게도 시댁에서는 재혼 후 1년만에 딸을 데려갔다.

박씨는 한국전쟁 발발 후 평택으로 피난내려와 4남매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딸 충심씨를 한평생 가슴에 묻어야 했고, 사 진 한장 챙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

박씨는 "딸이 어린 나이에 활달한 성격에 믿음직스러웠다"며 "딸애의 성격으로 봐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8 (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김영화씨

(보령=연합뉴스) 임준재기자 = "생사를 몰라 죽은 줄만 알았던 형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적십자사 제6차 이산가족 금강산 순차 상봉방문 후보자 중 형님 김영렬(71)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동생 영화(70.남.보령시 명천동 주공아파트 301동 101호)씨는 기뻐하면서도 50여년 간 헤어졌던 야속한 세월에 설움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씨는 "30여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은 생전에 '영렬이가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겠다며 형님 밥그릇을 항시 올려 놓았던 생각이 떠오른다며 그토록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부모님이 지하에서 아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영화씨는 형님(영렬)은 군산중(6학년) 시절에 미군 통역으로 일할 정도로 수재였으나 6.25와 함께 대지주의 아들로 고향에 돌아가면 죽는다는 헛소문에 17살 어린 나이로 의용군에 입대, 지금까지 소식을 모른 채 살아왔다.

형님의 의용군 입대 후 1주일만에 형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도 의용군에 들어갔으나 형님을 만날 수 없어 곧바로 탈출,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5년 전 고향(보령)에 돌아 온 영화씨는 그 때 같이 고향으로 왔으면 이 같은 이별의 아픔은 없었을 것 아니냐며 아쉬움에 고개를 숙였다.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사촌 형제로 알려진 영화씨는 "죽은 줄로 여겼던 형님의 생존 사실을 듣고 전 가족들에게 알렸다"며 "상봉의 순간이 손꼽아 기다려진다"고 기뻐했다.

영화씨는 "어릴 때 헤어졌지만 함께 군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형님이 잘 돌아줘 형님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며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방송될 때마다 혹시나 형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꿈이 이루어 졌다"며 기뻐했다.

limjj21@yonhapnews.co.kr

(끝)

연합뉴스

2003. 1. 28 (화)

<이산가족 南상봉대상>-최지익씨

(양양=연합뉴스) 이종건기자 = "북한에서 형님이 남한의 동생들을 찾는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음달 20일 금강산에서 있을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촌형 최인규(77)씨가 남한의 동생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최지익(67. 양양군 양양읍 월리)씨는 28일 "하루 빨리 형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형님은 원산 제2여중의 지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양양에 살고 있던 부친(작은아버지)이 형님은 현지에 남겨 둔 채 임신을 한 형수님만 데리고 양양으로 내려왔지요. 이후 형님과 가족들은 헤어지게 됐고 이렇게 산 것이 5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씨는 "57세 때 돌아가시기 까지 형수님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느라 모진 고생을 다했다"며 "형님이 찾는 가족 중에 자식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은 아마 이름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쪽의 인규씨가 찾는 가족 중 여동생인 최경옥, 준옥, 순옥씨는 현재 경기도 포천과 경북 구미, 경주에 각각 살고 있으며 아들 증상(52)씨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어머니와 큰아버지, 외삼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momo@yna.co.kr

(끝)

<이산가족 南상봉대상>-조광래씨

(횡성=연합뉴스) 김영인기자 = "휴전협정 직전 아버지가 월북을 하면서 함께 데려간 큰누님이 우리 동생들을 찾는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53년 봄 아버지(조재열, 작고)를 따라 월북한 조향래(69. 여)씨가 남한의 동생들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조광래(55. 원주시)씨는 "아버지가 큰누나와 형만 데리고 월북한 이후 통한의 50년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아버지가 월북할 당시 자신은 천연두에 걸리고 어머니(김형열, 74년 작고)는 장티푸스로 앓아 눕는 바람에 전가족이 움직일 수 없어 큰누나와 형(상래씨, 65)만 데리고 가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향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를 떠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머지 동생들은 조씨 이외에 영숙(67. 여)씨가 충북 제천에, 선자(60. 여)씨와 상숙(58. 여)씨는 충남 대전에서 모두 일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

조씨는 "누나들에게 모두 큰누나 소식을 전하니까 기쁨과 한에 목이 메어 말들을 잊지 못했다"며 "큰누나가 최종 상봉대상자로 선정돼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확고고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상봉 기대 이산가족의 설레는 설맞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평양은 제주도보다 많이 추우니까 동생에게 설 선물로 내복을 사주고 싶어요"

내달 20일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반세기 이상 헤어진 북한의 부모·형제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남측 이산가족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그리움으로 하루 하루가 길기만 한 표정이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끌려간 동생 영애(73)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접한 양영순(75.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는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97세인 어머니께서 자식을 먼저 보내지 않았다고 너무 기뻐하셨다"며 "평양이 고향인 제주도보다 많이 추우니까 설 선물로 내복을 사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차출된 동생 철희(82)씨의 상봉요청 사실을 전해 들은 우복점(86.여.서울 중구 쌍림동)씨는 "요새는 계속 해서 동생 사진을 꺼내보는 일이 일과가 됐다"며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 기분도 제대로 안들고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조바심만 날 뿐"이라고 말했다.

1.4 후퇴때 헤어진 형 동권(85)씨와 여동생 춘반(73)씨를 만날 꿈에 부푼 노수영(75.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는 "50년 이상 보지도 소식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보게 된다니 기쁘기 보다는 명할 뿐"이라며 "명절때면 임진각에 찾아 가곤 했는데 올해 설은 가족을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한홍(80.경기 시흥시 포동)씨는 서울 유학 중 1.4 후퇴로 발이 묶이는 바람에 헤어진 여동생 순이(77)씨와 조카 복희(54.여)씨가 개성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꿈은 잊고 살았지만 명절때만 되면 너무나 그리운 가족들이기에 설에 집으로 초대, 함께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 소식도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공군이 들어오면 처녀들을 잡아간다는 말에 열흘만 피해있기로 한 그 길이 가족과의 마지막이 됐다는 홍종천(73.여.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씨는 "언니와 여동생들이 살아있다니 가슴이 벅차 말이 안나온다"며 "매년 설이면 찾아가는 절이지만 올해는 가슴이 두근거

려 걸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설레는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원로 '부부 발명가'로 유명한 하상남(76.여)씨 역시 "동생 상익(74)이가 나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좋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명절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인 만큼 하루 빨리 동생을 만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조급해 했다.

휴전선에 가로 막혀 반세기 이상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박은식(80.여.경기 평택시 팽성읍)씨는 "재혼 때문에 딸 추신(62)이를 시댁에 맡길 수 밖에 없었지만 새 남편 사이에 3남 1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한번도 맘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며 "죽기 전에 딸을 만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 이번 설이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south@yna.co.k
(끝)

연합뉴스

2003. 1. 30 (목)

KBS, 북측 이산가족 후보명단 방송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KBS 1TV가 30일 오후 5시 15분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2.20~25, 금강산) 북측 예비후보 200명의 명단을 방송한다.

KBS측은 이규봉.김성은 아나운서가 20분간 진행하는 '남쪽 가족을 찾습니다-이산 상봉 북측 대상자 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가족의 명단을 프로필과 함께 방송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산가족 명단을 자체 홈페이지(www.kbs.co.kr)에 게재하는 한편 다음달 4일에도 한차례 더 방송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26일 예비후보 200명의 명단을 북측으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이들이 애타게 찾는 남쪽 가족들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방송배경을 설명했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8 (토)

이산가족 187명 생사.주소 확인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2.20~25, 금강산) 북측후보 200명중 187명에 대한 남측 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한적은 지난달 26일 북측으로부터 20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13일동안 확인한 결과 총 187명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한 회보서를 9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187명 가운데 1~5차 이산가족 행사때 명단에 들었다 탈락했던 49명이 포함돼 실제로는 138명이 확인된 셈이다.

한적은 10일 직계가족과 연령 등을 기준삼아 최종 100명을 선정한 뒤 11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9 (일)

"상봉대상 포함되길"-생사확인 최고령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돌아가신 줄 알고 그 동안 제사까지 모셨었는데...."

9일 북측이 통보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북측 상봉후보 가족중 최고령자인 어머니 원음전(92)씨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확인한 강관호(67, 서울 마포구 성산동)씨는 차마 믿기지 않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강씨는 1.4후퇴때 헤어진 어머니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해 그 동안 집에서 어머니의 제사를 모셔왔다.

강씨는 아직 살아있을 동생들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다가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예기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들었다.

강씨는 "어머니 얼굴만이라도 꼭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꼭 상봉대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측 가족 중 최고령자인 장수천(96, 경기도 성남시 분당)할머니도 북에 살고 있는 딸 량영애(69)씨를 이번에는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득차 있다.

장 할머니의 큰 딸이자 량씨의 언니인 양영순(75)씨는 "지난 62년 북송된 재일교포를 통해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소식이 끊겼었다"며 "상봉이 확정되면 미국에 있는 남동생도 당장 한국으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어머니가 고령으로 귀가 어두우시지만 거동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동생의 소식을 들으신 후 '이렇게 만나려고 오래 살았나 보다'면서 많이 우셨다"고 전했다.

zitrone@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9 (일)

남북, 6차이산상봉 생사확인결과 교환(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은 20일부터 엿새동안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앞서 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생사 및 주소 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이날 "남북이 오늘 연락관 접촉에서 남측 136명, 북측 188명에 대한 상대측 가족들의 주소 확인 회보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넘겨준 결과에 따르면 남측 가족 200명 가운데 136명의 북측 가족 생사가 확인됐다. 남측 후보 1명의 재북 가족은 상봉을 거절했고 남측 후보 31명의 재북 가족은 이미 사망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사.주소가 확인된 재북 가족은 ▲부모 2명 ▲배우자 8명 ▲자녀 47명 ▲형제.자매 116명 ▲손자 5명 ▲3촌 이상 친척이 86명 등 모두 264명으로 집계됐다.

북측 가족.친척 가운데 최고령자는 남측 후보 강관호(남.67)씨의 어머니 원음전(92)씨이다.

한편 한적은 북측 후보 200명 가운데 188명에 대한 재남 가족 및 친지들의 생사확인 회보서를 전달했다.

북측 후보에 대한 재남가족 생존자는 ▲부모 10명 ▲배우자 10명 ▲자녀 19명 ▲형제.자매 557명 ▲손자 1명 ▲3촌 이상 친척이 211명 등 모두 808명이다.

재남가족 최고령자는 북측 량영애(여.69)씨의 어머니 장수천(96)씨, 리은택(남.73)씨의 어머니 박준록(96)씨, 송순영(여.71)씨의 어머니 오매월(96)씨 등 3명으로 조사됐다.

한적은 상봉 후보자 가족.친척 생사확인 회보서가 교환됨에 따라 10일 직계가족여부와 연령 등을 감안해 100명을 선정하고 11일 북측과 최종 명단 100명씩을 교환할 예정이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9 (일)

<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오매월씨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 "이제 눈을 감아도 한이 없을 것 같네요"

제6차 이산가족 명단에 오른 남측 최고령자인 오매월(吳梅月.96.대전시 동구 판암동 189-1) 할머니는 북쪽에 둘째 딸 송순영(71)씨가 남한의 노모를 보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오 할머니의 둘째 딸이 북으로 끌려 갔으며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6.25가 난 그해 여름이었다.

둘째 딸과 함께 서울의 방직공장에 다니던 친구가 고향인 대전에 혼자 내려와 딸이 북쪽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후 오 할머니는 지금까지 딸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오 할머니의 큰 아들 태영(67)씨는 "어머님은 그동안 둘째 딸이 설마 죽었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으셨으며 이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머님은 성격상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의 고통을 내보이지 않는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둘째 딸에 대한 슬픔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 오셨다"고 덧붙였다.

오 할머니는 "고생한 우리 순영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확히 오전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드린 뒤 운동을 통해 정정함을 잃지 않고 있으며 슬하에 3남3녀(순영씨 제외)가 모두 생존해 있다. (사진 있음)

jung@yna.co.kr

(끝)

<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김봉용씨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 "할머니 결국 못보고 갔구나"

6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후보자 김봉용(80.부산 연제구 거제동)씨는 9일 오후 북측에서 통보 해온 가족생사확인명단에 50여년이 넘도록 그리던 부인 김금선씨가 '사망'으로 통보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인민군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부인과 어린 딸을 남겨놓고 혈혈단신 월남한 김씨는 "금방 만나자는 약속이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며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종전후 남한땅에서 재혼에 슬하에 5남매를 뒀지만, 북에 두고온 가족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김씨는 그나마 당시 3살이었던 딸 영화(55)씨와 여동생 봉희(78), 남동생 봉준(59)씨의 생존사실을 전해듣고는 "우리 딸과 동생들을 만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며 먼저 간 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소나마 달랬다.

김씨는 자신이 이산가족 상봉장인 금강산에 갈 수 있는지를 몇번씩이나 되물고는 "아직까지 그 얼굴들이 생생하다. 더 늦기전에 꼭 딸과 동생을 만나고 싶다"며 이산가족 상봉단에 합류할 수 있기를 고대했다.

sjh@yna.co.kr

(끝)

<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홍순림씨

(제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 "시집 온 뒤 헤어진 동생을 60여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9일 북측이 통보한 이산가족 주소확인 결과 여동생 손예(72)씨와 장조카 관표(60)씨가 북에 생존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홍순림(85.여.제천시 천남동 391-2) 할머니는 북받치는 서러움에 눈시울부터 붉혔다.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나 열 일곱 되던 해 남편(88.한국전쟁 때 행방불명)을 만난 홍 할머니는 결혼 직후 철도청에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충북 제천으로 내려온 게 가족과 생이별의 시작이었다.

홍 할머니는 "고향을 떠난 뒤 큰 동생 손길(사망)이 혼례 때 잠시 친정에 들러 가족들을 만나게 영원히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그 후 손길이가 아들 관표를 낳은 뒤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고향에 가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전쟁 중에 남편까지 행방불명돼 낯선 단향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슬하의 두 자녀를 키운 홍 할머니는 "당시 남편이 북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친정식구들을 찾지 않았겠냐"며 혹시나 듣게될지 모를 남편 소식에 애간장을 태웠다.

"워낙 어릴 때 헤어진 다섯 동생이지만 지금도 이름과 나이를 또렷이 기억한다"는 홍 할머니는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손예는 내가 시집 올 당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어린아이였으며 유난히 눈이 크고 콧날이 오뎝했다"고 옛 모습을 회상했다.

그녀는 또 "부모님과 큰 동생은 죽은 줄 알았지만 둘째와 셋째 동생마저 벌써 저 세상에 간 줄 몰랐다"며 "하루 빨리 손예를 만나 60여년간 눈이 짓무르게 보고싶던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듣고 싶다"고 말문을 흐렸다.

bgipark@yna.co.kr
(끝)

<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권경택씨

(고양=연합뉴스) 최찬홍기자= 6차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권경택(74.여.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는 북한에 동생 흥택(73)씨와 진택(65)씨, 옥순(68.여)씨가 살아 있다는 낭보에 "출가하고 반백년이 지나서야 친정식구들을 만나게 됐다"며 기뻐했다.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새말마을에 살던 권 할머니는 8.15해방 2~3년후 일산으로 시집을 온 뒤 한국전쟁 발발로 친정식구들과 소식이 끊기는 바람에 일가친척 없이 그야말로 출가외인이 됐다.

권 할머니는 "대머리에 호리호리했던 아버님과 서글서글하셨던 어머니 슬하에 8남매가 오순도순 지냈다"며 "목화를 따고 새참 함지를 나르던 기억이 어렵듯하다"며 고향을 그리워 했다.

권 할머니는 "흥택이는 까불까불했지만 진택이는 점잖았고 옥순이는 키가 크고 덩덩렁렁했다"면서 "동생들의 얼굴은 통 떠오르지 않지만 만나면 금방 알아볼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할머니는 큰오빠 정택씨 등 오빠, 언니 3명은 사망했고 이름을 모르는 막내아우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도 생존한 동생들을 만날 날을 손꼽으며 슬픔을 달랠다.

cha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9 (일)

<6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김순찬씨

(김해=연합뉴스) 정학구기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것이란 기대는 안했지만 북의 네 동생 가운데 두 동생이 벌써 죽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생이라도 하루 빨리 만나 뵈었던 이야기를 밤새 하고 싶습니다"

제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앞서 북측 가족 생사가 확인된 남측 136명 가운데 경남 김해의 김순찬(76)씨는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두 동생의 사망 확인에는 무척 상심하는 표정이었다.

김씨는 "6.25 사변 중 편지를 한 번 받은 후에는 소식이 끊어져 그동안 포기상태에서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산가족찾기 행사를 지켜보면서 내게도 상봉 순서가 올까 생각했는데 막상 통보를 받고 나니 긴가민가합니다"라고 말했다.

6남매였던 김씨는 한국전쟁이 나기 전인 1948년 두살 아래 동생 순관(3년전 사망)씨와 함께 고향 황해도 신천군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다.

북에는 순옥(68.여), 순일(66), 순조(62), 순녀(58.여)씨 등 4남매가 남았는데 이번에 순옥.순조씨만 생존하고 나머지 두 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남쪽에 내려와 6.25 동란이 터지자 남한 군대와 미군이 북진해 곧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그대로 50여년 세월을 소식조차 모르며 숨죽여 살아온 것이다.

아들 길환(35)씨는 "적십자사로부터 생사확인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상봉 대상으로 완전히 확정 이 안돼 실감이 안나시는 모양"이라며 "슬픔과 기대가 교차되는 가운데 생존한 형제들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b940512@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10 (월)

한적, 이산가족 최종명단 100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오는 20일부터 6일 동안 실시될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는 10일 오전 북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회보서를 바탕으로 생존 확인된 104명에 대해 직계 가족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작업을 벌여 4명을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북측이 전달한 회보서에 따르면 전체 200명 가운데 136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확인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상봉거부, 31명은 사망으로 분류돼 상봉 대상자는 104명이 됐다.

100명 가운데 최고령자는 서울에 거주중인 함정호(93) 할아버지로 북측의 아내 김진권(80)씨와 아들 성운(55), 딸 금희(52)씨 등 3명을 만날 예정이다.

한적은 11일 북측과 최종 명단을 교환한뒤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적 관계자는 "100명에 선발된 이산가족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방북을 포기할 경우 추가로 더 선발할 수 있다" 며 "현재 육로 이동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10 (월)

북측 "금강산 육로상봉 어려워"(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최근에 뚫린 육로를 통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북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에는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0일 오전 북측으로부터 "20일 이산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육로이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산가족의 육로이동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설봉호를 통한 해로 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측 관계자들은 9일 오전 판문점에서 200명에 대한 회보서를 교환하면서 육로이동 가능성을 묻는 남측 질문에 "윗 선에서 나중에 결정할 일"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한적은 지난 7일 서영훈 총재 명의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들의 육로이동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산가족 500명, 23일 100명이 각각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설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한적 이병웅 총재 특보는 "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절충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이산가족 육로문제를 놓고 북측과 끝까지 협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11 (화)

남북, 6차 이산상봉 최종명단 교환(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은 11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20~25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제6차 이산가족 순차 상봉에 참여할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북측 상봉단 100명 가운데 최고령자인 리대인(80.경기도 평택시 출신)씨는 남측 부인과 딸 3명, 아들 1명과 상봉한다.

성별로는 남성(83명)이 여성(1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족관계는 부모, 부부, 자식 관계가 20명, 형제.자매 관계가 78명, 3촌이상 친척관계가 2명으로 분류됐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명, 70~79세 82명, 60~69세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출신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18명, 강원 14명, 서울과 충북이 각각 9명, 전남 8명, 충남 7명, 제주와 전북이 각각 5명, 경남 4명, 부산과 울산, 중국이 각각 1명이다.

남측 상봉단 중 최고령자인 서울의 함정호(93)씨는 북측의 아내 김진권(80)씨와 아들 성운(55), 딸 금희(52)씨 등 가족 3명과 만날 예정이다.

남측 상봉단을 연령별로 보면 90세 이상이 3명, 80~89세 38명, 70~79세 52명, 60~69세 7명이다.

가족관계는 형제.자매가 53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 부부, 자식관계가 33명, 3촌이상 친척관계가 14명으로 확인됐다.

한적은 북측 100명의 남측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500명을 결정하며 이들은 오는 20일 설봉호를 타고 장전항으로 입북한다.

한편 한적은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의 금강산 육로이동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다.

khmoon@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14 (금)

6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길 이용(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제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금강산 육로길이 이용된다.

이산가족의 동해선 임시 신작로 이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육로관광에 하루 앞선 것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14일 낮 북한 조선중앙적십자회로부터 "남측 이산가족들이 새로 열린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전화통지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통문은 장재언 조선중앙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에 보내진 것이다.

한적은 지난 7일 조선적십자회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들의 육로이동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 이산가족과 친척 500명, 100명은 방북 하루전인 19일과 22일 오후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해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ID카드를 지급받고 20일과 23일 버스편에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임시 남북출입관리연락사무소를 거쳐 상봉장인 금강산에 가게 된다.

정부는 해상로 대신 육상 신작로를 이용, 이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북측과 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분단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하는 동해선 임시도로가 뚫려 민간인이 오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시작을 이산 상봉행사로 하는 것이 의미있는데다 고령인 이산가족의 편의를 위해 해로보다 육로가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kjih@yna.co.kr

(끝)

北赤 "육로상봉, 민족공조 견지서 의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장재언 북한 조선적십자사회 위원장은 14일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육로를 이용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키로 했다며 이 조치는 동포애와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우리(北)는 제6차 금강산 상봉에 참가할 귀족,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동해안 임시도로를 통해 내왕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가 동포애와 인도주의, 민족공조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6차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과 의지를 고조시켜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끝)

연합뉴스

2003. 2. 19 (수)

남측 상봉단 내일 육로로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인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할 대한적십자사 이세웅(李世雄) 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남측 상봉단 565명은 20일 낮 버스편으로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향한다.

남측 상봉단은 북한 이산가족 99명을 만날 가족, 친척 465명과 지원요원 70명, 취재진 30명 등이다.

북측 이산가족은 당초 모두 100명이었으나, 윤기(여.71)씨가 만나기를 희망한 남쪽 가족들이 어머니 최명희(94)씨가 중환이어서 누구도 금강산에 갈 수 없다고 해 막판에 빠졌다.

우리측은 다른 이산가족이라도 선정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교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이 날 때 이화여중을 다니다가 북에 간 딸 랑영애(70)씨를 만날 남의어머니 장수천(97)씨, 이십대 꽃다운 나이에 헤어진 북의 남편 김경수(77)씨를 53년만에 만나게 되는 남의 동갑내기 아내 이임노씨 등 남쪽의 가족, 친척 465명은 상봉 하루전인 19일 오후 강원도 속초의 한화콘도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은 뒤 반세기만의 상봉에 대한 설렘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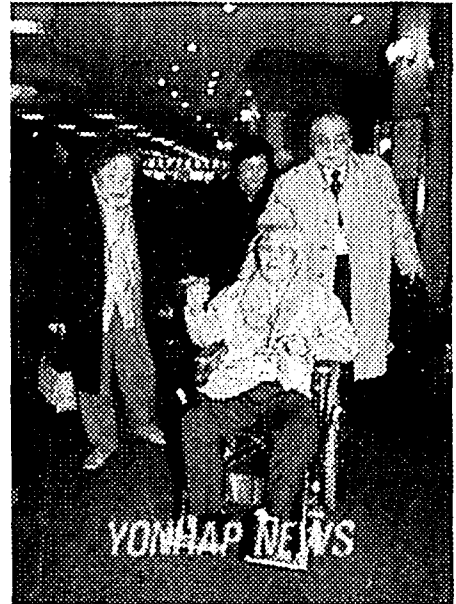
남측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장수천 할머니는 "영애가 실종된 후 죽었다고 생각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아이 한 번 만나고 눈을 감아야 되겠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53년전 헤어진 남편 김용진(76)씨를 만나러 가는 김후웅(79)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면 '왜 인제 왔느냐'고 때려 줄 거야"라고 했다가 이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고마울 뿐"이라며 상봉을 고대했다.

한편 23일부터 25일까지 북측 가족, 친척들을 만날 남측 이산가족 100명중 방송연씨는 몸이 불편해 부인 최봉주(78)씨가 대신 가족들을 만나게 됐으며, 최연숙씨도 거동이 어려워 사위 유수정(59)씨가 대신 금강산에 가게 됐다.

또 박창목씨와 함정호씨의 경우 가족 가운데 대신 갈 사람이 없어 이번에 상봉 후보자로 뽑혔던 최미지자(여.74)씨와 김기출(여.74)씨로 각각 교체됐다.

(끝)



집결지 도착한 이산가족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한 남측이산가족이 19일 오후 집결지인 속초 한화콘도에 도착하고 있다. /이종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ww.yonhapphoto.co.kr

<상봉 앞두고 들뜬 이산가족들>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0일 아침 금강산으로 향할 전세버스에 오르는 상봉가족과 친척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었다.

피난길에 실종된 아들 임동규(69)씨를 만날 남쪽의 어머니 김금남(96)씨는 귀가 어두워지고 요즘 정신이 다소 혼미해졌지만 소감을 묻자 "지금까지 아들을 보고 싶은 집념에 살아왔다"고 뚜렷이 말했다.

상봉단은 19일 밤, 집결지인 속초의 한화 콘도에서 50여년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상봉 가족·친척들은 19일 오후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집결시간 보다 일찍 숙소인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 별관에 도착했다.

일부 가족은 반세기만의 상봉에 들뜬 나머지 하루 전인 18일 속초에 온 경우도 있었다.

북측 윤상도(74)씨 남측 형제들은 평소 차멀미가 심한 96세의 노모(老母) 유순옥씨 건강사정 등을 헤아려 18일 속초에 도착, 가장 먼저 집결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력이 나빠 눈앞의 사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유씨는 "상도가 어려서 이마 한가운데 함석에 굵은 흉터가 있어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50년동안 생이별을 했던 남쪽의 아내들은 평생을 수절하며 시부모를 모신 열녀가 대부분이었다.

북의 남편 김경수(77)씨를 만나는 동갑내기 아내 이임노씨는 남편이 남기고 간 두 딸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53년을 살아왔다.

남편이 재혼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각자 남쪽과 북쪽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남편은 키와 코가 큰 미남이라 지금 봐도 한눈에 알아볼 것"이라고 변함없는 부부의 정을 드러냈다.

북측 남편 김용진(78)씨를 만날 남측 아내 김후웅(79)씨는 3년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도 없는 홀몸으로 시부모를 공양해왔다.

지금도 90세 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로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은 세 살 때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다.

북쪽의 아들과 딸을 만나게 된 남측 어머니들은 구순이 넘은 나이 탓에 대부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살아서 자식을 만나게 된다는 기쁨에 밝은 표정들이었다.

지난 50년 영등포 방직공장에 근무하다 북으로 간 딸 송순영(71)씨를 만나는 노모 오매월(96)씨는 활발한 성격에 7남매의 둘째 딸로서 집안의 기동역할을 했던 순영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했다.

오씨는 "일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영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를 해왔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날 집결장소인 한화콘도에는 이산가족들의 접수와 안내 등 행사진행을 위해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의 적십자 자원봉사자 160여명이 나와 이산가족들을 도왔다.

또 인근 터미널과 공항에 차량 25대와 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이산가족들이 눈길속에도 손조롭게 방북길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0 (목)

청와대 "육로 이산상봉 의미"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국민의 정부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인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이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육로를 이용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로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먼 뱃길이 아닌 육로를 통해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남과 북의 모든 이산가족들이 누구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yy@yna.co.kr

(끝)

이산가족 방문단 561명 버스편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금강산에서 열릴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친척 461명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지원 인원 70명, 기자단 30명 등 561명으로 구성된 남측 상봉단(단장 이세웅·李世雄 한적 부총재)이 20일 낮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방북한다.

남측 상봉단이 만날 북측 이산가족은 모두 99명. 당초 100명이었으나, 윤 기(여·71)씨가 만나기를 희망한 남측 가족중 어머니 최명희(94)씨가 중환이라는 이유로 상봉을 포기했다.

당초 남측 상봉가족·친척은 465명으로 예상됐으나, 19일 집결지인 속초에 2명이 도착하지 않았고, 다른 2명은 20일 새벽 건강이 좋지 않아 금강산행을 포기했다.

방북을 포기한 사람은 53년전에 헤어진 북측의 남편 리대인(80)씨를 만나러 아픈 몸을 이끌고 서라도 금강산에 가려했던 아내 우증필(77) 할머니와 딸 이영희(59)씨다.

평소 심신이 허약한 우 할머니는 이날 '선망증' 이 나타나 남편과의 반세기만의 상봉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가족이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영희씨도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남기로 했다.

이 때문에 리대인씨를 만날 가족으로 리씨의 딸 영순(56), 해복(53)씨와 사촌 여동생 주현(72)씨 등 3명이 금강산으로 향하는 전세버스에 올랐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전 8시 50분 속초를 떠나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오전 11시30분께 비무장지대(DMZ) 북측 통문을 지나 오후 1시께 장전항에 마련된 북측 세관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온정각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단체상봉에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공동만찬을 갖는다.

(끝)

연합뉴스

2003. 2. 20 (목)

<상봉 앞두고 들뜬 이산가족들>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20일 아침 금강산으로 향할 전세버스에 오르는 상봉가족과 친척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었다.

피난길에 실종된 아들 임동규(69)씨를 만날 남쪽의 어머니 김금남(96)씨는 귀가 어두워지고 요즘 정신이 다소 혼미해졌지만 소감을 묻자 "지금까지 아들을 보고 싶은 집념에 살아왔다"고 뚜렷이 말했다.

상봉단은 19일 밤, 집결지인 속초의 한화 콘도에서 50여년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상봉 가족·친척들은 19일 오후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집결시간 보다 일찍 숙소인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 별관에 도착했다.

일부 가족은 반세기만의 상봉에 들뜬 나머지 하루 전인 18일 속초에 온 경우도 있었다.

북측 윤상도(74)씨 남측 형제들은 평소 차멀미가 심한 96세의 노모(老母) 유순옥씨 건강사정 등을 헤아려 18일 속초에 도착, 가장 먼저 집결장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2003. 2. 23 (일)

<금강산상봉> 남측단장 만찬사 전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김일희 남측단장은 23일 만찬사를 통해 "지금까지 남과 북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이산가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단장이 낭독한 만찬사 전문.

『최창식 단장님을 비롯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남과 북의 이산가족 여러분.

먼저 우리 방문단을 위해 이처럼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주신 최창식 단장님을 비롯한 적십자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북의 이산가족 300여명은 꿈에도 그리던 혈육과 반세기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만남입니까?

젊은 시절, 굵디고운 모습은 간데 없고 만나지 못했던 긴 세월의 아픔처럼 깊게 패인 주름을 서로 어루만지시며 쌓인 화포를 나누는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강한 핏줄로 이어진 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로로 이곳에 왔습니다. 남과 북의 거리는 채 백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까운 길을 두고 우리는 먼길을 다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이산가족들이 이 동해선을 따라 모두 이곳에 와서 한 평생 기다려온 생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손모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적십자 관계자 여러분.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눈물 감고 있습니다. 일본 일초가 아쉽습니다.

우리 적십자인들의 사명은 평생을 기다려온 이 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십자의 인도주의는 이념을 초월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서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위로해 드리는 데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쌓아온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이산가족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방울의 빗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한 알의 흙먼지들이 모여 구름을 이루고 산맥을 이루듯이 우리의 소원도 언젠가는 그 같이 큰 세상을 이룰 수 있겠지요. 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소원이 조속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산가족과 적십자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합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4 (월)

-금강산상봉- 남북가족 개별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6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인 남측 99명은 23일 단체상봉에 이어 둘째날인 24일 오전 10~12시에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 친척과 개별상봉을 가졌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교예를 관람할 예정이다.

개별상봉에서 정부전(80) 할머니는 황해도 연백의 친정집에 잠시 맡겨두었다가 6.25 전쟁이후 친정집이 북측에 편입되면서 생이별하게 된 딸 이현주(58)씨를 만나 "(북측) 사위와 손자, 손녀 4남매 등 딸 가족 모두가 나올 줄 알고 속옷, 점퍼 등 옷가지와 가족장갑, 의료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너 혼자만 나왔나"며 아쉬워했다.

또 이석병(74) 할아버지는 돌도 채 안됐을 때 고향인 함경남도 통산에 아내와 함께 남겨두고 왔던 아들 동호(54)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동호가 태어난 후 증조할머니가 '증손'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 '증손'으로 상봉신청을 했으나 '확인불가' 통보가 와 못 만날 줄 알았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동호씨는 "생전 처음 뵈지만 작은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 한 눈에 아버지인 걸 알아봤다"며 아버지를 업고 방을 한바퀴 돌기도 했다.

이석병 할아버지는 "동호와의 상봉을 예상치 못해 동호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속옷과 간단한 의약품 등을 선물로 꺼냈다.

강관홍(67) 할아버지는 동생 관식(64)씨와 관옥(63)씨에게 남측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 일일이 소개했다.

관식씨가 "1.4 후퇴때 형님이 타고가던 배가 뒤집혀 죽은 줄만 알았다"며 50여년만의 만남에 감격해하자,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만나 못내 섭섭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식씨는 "어머니는 86년에 물을 길어나르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상봉장에 못 오셨지만 형님을 너무 애타게 보고싶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측 딸과 사위를 만난 김봉용(80) 할아버지는 23일 단체상봉장에서 미처 주지 못한 옷가지와 금붙이, 달걀 등 준비해간 선물을 꺼내놓았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만난 사위에게 6.25 전쟁으로 딸과 3살때 헤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못 준 사랑까지 더해 딸을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4 (월)

-금강산상봉- 남북가족 이틀째 만남

(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 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가족 99명은 24일 북측 가족, 친척 250여명과 금강산에서 이틀째 만남을 가졌다.

남북 이산가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측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2시간에 걸친 개별 상봉을 가진 뒤 오후 1시 인근 금강산여관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이어 오후 4시에는 인근 현대문화회관에서 북측 모란봉 교예(서커스)단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개별상봉에서 북측 어머니 원음전(86)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금강산까지 달려온 강관호(67)씨는 "내 평생 한이 어머니 한번 보는 것이었는데.."라며 원씨가 노환으로 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강씨는 이어 북반치는 감정을 누르고 두 동생 관식(66), 광옥(64)씨의 손을 꼭잡은 채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준비해왔다"면서 조용히 어머니의 수의(縗衣)를 건넸다.

북측 동생 흥택(71), 순옥(68.여), 진택(65) 등을 만난 권형택(74.여.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는 상봉시간 내내 여동생 순옥씨의 두 손을 꼭 쥐고 "다시 만날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다음에는 내 아들, 딸이랑 조카들도 다 같이 만나자꾸나. 그런데 이제 언제 다시 보나..."라며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개별상봉이 진행된 해금강호텔에서는 북측 안내원들이 약속된 상봉공개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남측 기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하면서 남측기자들과 북측 안내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금강산 여관 광장에서 작별 상봉을 하는 것으로 2박3일의 상봉일정을 마치고 오후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귀환한다.

(끝)

연합뉴스

2003. 2. 24 (월)

-금강산상봉- 남북가족 개별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6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인 남측 99명은 23일 단체상봉에 이어 둘째날인 24일 오전 10~12시에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 친척과 개별상봉을 가졌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교예를 관람할 예정이다.

개별상봉에서 정부전(80) 할머니는 황해도 연백의 친정집에 잠시 맡겨두었다가 6.25 전쟁이후 친정집이 북측에 편입되면서 생이별하게 된 딸 이현주(58)씨를 만나 "(북측) 사위와 손자, 손녀 4남매 등 딸 가족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숙웃, 점퍼 등 옷가지와 가족장갑, 의료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너 혼자만 나왔나"며 아쉬워했다.

또 이석병(74) 할아버지는 돌도 채 안됐을 때 고향인 함경남도 통산에 아내와 함께 남겨두고 왔던 아들 동호(54)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동호가 태어난 후 증조할머니가 '증손'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 '증손'으로 상봉신청을 했으나 '확인불가' 통보가 와 못 만날줄 알았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동호씨는 "생전 처음 뵈지만 작은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 한 눈에 아버지인 걸 알아봤다"며 아버지를 업고 방을 한바퀴 돌기도 했다.

이석병 할아버지는 "동호와의 상봉을 예상치 못해 동호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숙웃과 간단한 의약품 등을 선물로 꺼냈다.

강관홍(67) 할아버지는 동생 관식(64)씨와 관옥(63)씨에게 남측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 일일이 소개했다.

관식씨가 "1.4 후퇴때 형님이 타고가던 배가 뒤집혀 죽은 줄만 알았다"며 50여년만의 만남에 감격해하자, 강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못 만나 못내 섭섭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식씨는 "어머니는 86년에 물을 길어나르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며 "상봉장에 못 오셨지만 형님을 너무 애타게 보고싶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측 딸과 사위를 만난 김봉용(80) 할아버지는 23일 단체상봉장에서 미처 주지 못한 옷가지와 금붙이, 달걀 등 준비해간 선물을 꺼내놓았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만난 사위에게 6.25 전쟁으로 딸과 3살때 헤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못 준 사랑까지 더해 딸을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4 (월)

<금강산 상봉> 개별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 24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기다리던 남측의 권형택(74) 할머니는 상봉예정시간이 2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북측의 동생들이 들어오지 않자 "오긴 오는 거냐"며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잠시후 동생 훈택(71), 순옥(68.여), 진택(65)씨 등 3명이 "누님", "언니"를 반갑게 부르며 객실로 들어서자, 권 할머니는 "어서들 오너라, 아침은 먹었니"라며 동생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가 고향인 권 할머니는 "일산에서 서울보다 고향이 더 가까운데 55년만에 만나다니..."라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6.25 전쟁이전인 1948년에 일산으로 시집온 권 할머니는 "그 때만 해도 왕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 생이별할 줄 몰랐다"며 "이제 살아 생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라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되뇌었다.

북의 여동생 순옥씨는 "언니 시집갈 때 내가 10살 이었는데 언니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기억하시죠"라며 "그 때 언니는 참 고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네요"라고 말하며 언니의 젖은 눈언저리를 어루만졌다.

권 할머니도 "너희들이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았고 어렸을때 모습도 많이 남아 있구나. 우리 동생들 닮았으며 조카들도 다들 미남미녀들이겠구나"라며 밝게 웃었다.

남동생 훈택씨는 선물로 준비한 북의 특산품인 들쭉술 2병과 고려인삼술 2병, 려과담배 1보루, 비단식탁보 등을 꺼내며 "매형 회갑상도 차려드리지 못했는데 꼭 갖다 드리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봉시간 내내 여동생 순옥씨의 두 손을 꼭 쥐고 있던 권 할머니는 "다시 만날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다음에는 내 아들, 딸이랑 조카들도 다같이 만나자꾸나. 그런데 이제 언제 다시 보나..."라며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 김희원씨는 개별상봉장인 해금강 호텔 333호에 여동생 기원씨(피바다가극단 인민배우)가 선물을 들고 들어서자 "월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라면서 "한복을 급게 차려입구 왔구나"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기원씨는 선물로 북한의 유명한 도예가인 유치선씨의 고려자기와 자신이 출연했던 피바다가극단의 공연 비디오 테이프 등을 선물하면서 "언니에게 큰 것을 주는 것보다 이걸 주면 기념이 될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언니 희원씨는 "어렸을 적 노래는 잘했지만 부모님없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동생을 대견해했고, 동생 기원씨는 "통일후 언니를 객석에 앉히고 공연한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측의 이만수(80) 할아버지는 한 살때 헤어졌던 남측의 딸 명숙(58)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엄마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다"며 생전의 부인 모습을 회고했다.

이에 명숙씨는 "이렇게 만나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흐느꼈다.

상봉사실을 지난 13일예야 통보받았다는 외손자 원기범(32)씨는 "급히 오느라 특별한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고 외할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 신청 꿀을 조금 준비했다"며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는 "다음에 만날때까지는 딸이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게 유일한 소원"이라며 "이제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고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 "내 평생의 한이 어머니 한번 보는 것이었는데..."

죽은줄만 알았던 북측 어머니 원음전(86)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금강산까지 달려온 강관호(67)씨는 원씨가 노환으로 단체상봉에 이어 개별상봉에도 오시지 못한 것에 대해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강씨는 해마다 명절이 되면 판문점 망향각에서 부모님 제사까지 모셨다는 것.

어머니 대신 두 동생 관식(66), 광옥(64)씨를 만났지만 강씨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동생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고맙다고 담담히 말하던 강씨는 어머니 원씨의 사진을 보자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동생들이 들쭉술과 담배 등 준비해온 선물을 꺼내자 강씨는 "다시는 못볼 것 같아 준비해왔"으며 조용히 어머니의 수의를 건네줬다.

"어머니 구수는 꼭 같이 모시자"며 손을 잡은 형제들에게 5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혈육의 정이 흘러넘쳤다.

○... 이흥근(73) 할아버지는 북측 형수 옥연숙(73)씨와 조카 이철규(41), 은규(35)씨를 만나 "영근 형님이 6.25때 고향(충청)에서 행방불명돼 죽은 줄만 알았다. 형님이 이북에서 결혼도 하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니, 동생으로서 명복만을 빌 뿐입니다"라며 한동안 합장한 채 묵묵히 예를 표했다.

조카 철규씨는 "아버지(영근)께서 전쟁때 군관이었더랬어요. 52년에 장군님께 영웅칭호도 받고 동골 국방상으로부터 훈장도 받았었어요"라며, 제복차림의 생전 아버지 사진과 각종 훈장 등을 소개하고 나서 "장군님 배려로 천연색 텔레비전 석대, 녹음기, 시계 등 모두 고급으로 선물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평양시에 두 칸짜리 고급주택도 하사 받았었습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 정부전(80) 할머니는 북측 딸 리현주(58)씨가 도착하기 전부터 해금강호텔 숙소 개별상봉장에서 딸에게 줄 선물을 챙기면서 내일의 기약없는 이별이 가슴 아픈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현주씨가 북측 안내원과 함께 도착하자 정 할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고 북측 딸은 "이 기쁜날 왜 우시냐. 자꾸 울지 마세요. 어머니는 서울에 계셨지만 저는 외할머니와 잘 살았어요"라며 애써 어머니를 달랬다.

그럼에도 정 할머니는 53년간 딸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에 계속 통곡했다.

그러자 북측 안내원들이 약속된 상봉 공개시간(20분)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남측 기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 홍중천(73) 할머니는 언니 증근(77)씨 등 북측 가족이 도착하기 10분전부터 복도와 엘리베이터 끝을 오가며 가족들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렸다.

홍 할머니는 언니와 여동생 증길(65)과 증금(59)씨가 숙소에 들어서자 "언니가 예전에 얼마나 예뻐했는데"라며 울먹였고 북측 자매들도 한동안 말을 못한 채 슬픔을 삭이는 모습이었다.

이들 자매는 북측 가족사진을 함께 보면서 근황에 대해 얘기했고, 홍 할머니는 대화도중 언니인 증금씨에게 우항청심환을 건네며 50년간 잊고 살았던 자매의 정을 나눴다.

○... 북한에 두고온 아내 권순애씨와 만난 조창환(75)씨는 "53년 헤어질때 아담하고 예뻐던 부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만나니 딴 사람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권씨도 "나도 늙었지만 영감도 참 많이 늙었다"며 다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보였다.

함께 나온 동생 중환씨는 "우리 형수님이 그동안 살아온 경로를 얘기하자면 감격없이는 안된다"라며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무료 의료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해도 연백에서 2천평 규모의 농사를 짓던 창환씨는 22살때 인민군 징집을 피해 인천으로 넘어와 군복무중 재혼했다.

창환씨는 아내를 위해 내복과 화장품, 금반지 등을 준비해와 건넸다.

북한 기자의 권유로 아내와 동생 중환씨가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말을 번갈아 쏟아내자 창환씨는 "그래 난 아무 상관없어. 얘기해도 돼"라고 말하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5 (화)

-금강산상봉- 6차 이산상봉행사 종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20일부터 시작된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종료됐다.

상봉단 2진인 남측 이산가족 99명은 2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금강산여관에서 북측의 가족, 친척 193명과 작별 상봉을 한 뒤 이날 오후 1시30분 금강산을 출발,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남측지역인 고성으로 향했다.

앞서 1진 남측 가족, 친척 461명은 지난 20일 육로로 방북,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 99명을 만났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7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오는 4월에 금강산 지역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갖기로 하는 등 남북간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산상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2003. 2. 25 (화)

-금강산상봉- 남북 가족들 또 눈물속 작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6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인 남측 99명은 25일 오전 금강산여관에서 북측 가족, 친척 193명과 작별상봉을 갖고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눈물과 한숨 속에 기약없이 헤어졌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지나 버스편에 강원도 속초로 귀환한다.

작별 상봉장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를 껴안고 혈육의 체취를 조금이나마 더 느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강건홍(78) 할아버지의 북측 아들 기준(63)씨는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아버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라며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박규순(76) 할머니는 1972년 서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북측 작은 아들 김태준(49)씨와 손자, 손녀가 큰 절을 울리며 작별인사를 하자 잠시나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 모습이었다.

또 부부 상봉자인 강상오(80) 할아버지는 1.4 후퇴 당시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 김치관(79)씨에게 못내 미안한 듯 "또 고생하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소. 면목이 없소. 오래 살아서 다시 만남시다"라며 아내를 껴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조창환(75) 할아버지도 자신만을 기다리며 수절해온 북측 아내 권순애(75)씨에게 계속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권씨는 "영감 미안해할 것 없어요. 꼭 통일돼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이영남(75) 할아버지는 북측 동생 완영씨에게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짜를 알았으니, 부모님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강관호(73) 할아버지는 "(북측) 어머니가 (88세로) 너무 연로해서 못 나오신게 아쉽지만, 돌아가신 줄 알고 (50년동안) 제사를 모셔온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니 다행"이라며 불효의 한을 달랬다.

앞서 이산가족 상봉단은 24일 오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교예공연을 관람하는 등 단란한 한때를 보냈다.

kjih@yna.co.kr
(끝)

사 설 · 칼 럼

사설

육로 통한 이산가족 상봉

남쪽 이산가족 461명이 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에 들어가 북쪽에 사는 가족·친지들을 만났다. 오는 23일에는 북에 가족을 두고 남쪽에 온 실향민 100명이 순차적으로 북쪽의 가족들을 만난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인 이번 만남을 포함해 5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6000여명이 재회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몰라 애타우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과 면회소 설치를 통한 상시적 만남이 절박한데도 남북 현실은 진전 속도가 느리기만 하다.

이번 상봉이 더욱 뜻깊은 것은 바닷길이 아닌 땅길을 통해 만났다는 점이다. 대부분 교령인 이산가족들이 험한 뱃길에 시달리지 않고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해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에만 간 것은, 육제적 편리함을 넘어 마음으로 한결 가까워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남북이 뜻을 모아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산가족들이 지나간 이 길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된다. 시범관광에 이어 명실공히 육로관광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웃마을 가듯이 북녘땅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꿈처럼 여겨지던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동쪽뿐 아니라 서쪽에서도 남북을 잇는 길이 뚫려서 오늘 현대아산·토지공사 관계자들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북쪽을 다녀온다. 앞으로 이 길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물자와 사람들이 쉽게 오가고, 개성 관광도 가능해질 터이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육로관광 등 남북 간의 화해·협력 노력은 더욱 빛이 나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준다. 지금의 어려움이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깨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마지막 시련이 되기를 기원한다.

한겨레

2003. 2. 21 (금)

사설

육로로 간 '금강산 상봉'

남한 이산가족들이 어제 버스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갔다. 바닷길로 돌아가는 먼 길 대신,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낸 지름길을 이용해 남과 북에 흩어져 살던 가족이 재회하는, '육로 이산상봉'이 시작된 것이다. 이산가족이 서로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처음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육로상봉은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이산가족이 더 자주 만나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6차 상봉 이후 예정이 없다. 북한이 그때 그때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단발성 상봉행사로부터 더 나아가려 하지 않은 결과이다. 시간에 쫓기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움을 해소해주기에는 여전히 북한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다. 북한은 이산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상봉 정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한다. 남북이 금강산 면회소 크기를 둘러싼

승강이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하루 빨리 면회소를 짓고 수시 상봉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봉길을 막는 장애물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토대를 흔들고 있는 북핵문제가 있다. 최근 북·미 대립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제재론이 나오는 등 한반도 정세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상봉의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있다. 북·미 갈등으로 삼엄음감은 평화가 깨지면, 다시 상봉길을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화가 소중한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분단과 대립의 산물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전쟁의 위험까지 도시린 북핵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산상봉이 마지못해 하는 반쪽행사가 아니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기고

홍사광

한국사회문화학회 이사장

‘이산가족’ 인권차원서 접근을

■ 우리 한민족은 혈통과 문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단일 민족으로 5000년을 같이 살아 왔다. 그러나 8·15해방과 6·25전쟁의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인위적으로 분단되어 1000만명이란 이산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분단의 고통을 간직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는 천륜과 인권의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판단에 의해 그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고, 속도 또한 그에 의해 조절된다. 이산가족들은 냉전 체제 아래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으며, 화해 시대에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상봉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크게 보아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로 나뉜다. 보수론자들은 정치 체제와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므로 이산가족 문제를 추진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진보론자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중시하므로 무수히 많은 이산가족 가운데 단 100명 또는 1000명 정도 만나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인권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인권 문제라면 신경을 곤두세우는 진보주의자들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일이 거의 없음을 어쩔 일인가.

이산가족이야말로 이데올로기의 횡포 앞에 희생당한 개인이다. 이산가족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날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공산 사회를 등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가족과 북한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가족 간에 겪고 있는 아픔의 총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을 떠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북한 당국자들이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권 문제를 돈과 결부시키는 집단이 북쪽에 엄존하는데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 정부도 북한의 그러한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다.

인권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뛰어넘고, 정치 권력이 공을 독점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양산된 이산가족들을 휴전선에 드리워진 철책으로 계속 막아놓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구차한 조건을 제시하고, 돈으로 거래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정보 요원들의 감시망을 동원하는 종래의 방법이 이산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자. 꿈에도 아른거리는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내 일처럼 생각하자.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적십자사들은 이산가족들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불행을 겪어 왔으며, 다행히 만났다고 해도 제한된 절차에 의해 흥금을 털어 놓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완화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는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갈라진 조국을 잇고, 흩어진 민족을 묶는 초석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